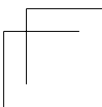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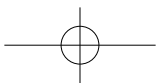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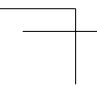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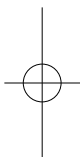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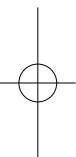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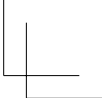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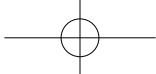


제2기 감리교 청소년 목회 전문훈련과정

청소년 사역사의 시정과 배신

- 일시 2011년 8월 18일(목) ~ 19일(금). 1박 2일.
- 장소 필그림하우스(031-589-7601)
- 대상 청소년사역 담당자(교육목사, 교육사, 교육전도사, 신학생)
- 주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 주관 교육국 청소년정책위원회



초대의 글

입시위주의 시간활용과 학업점수에 지배당하는 교육현실과 내부적으로 교회는 청소년의 삶의 변화를 외면한 채 아직도 19세기 교육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며 열악한 교회교육환경과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방법의 부재 등으로 청소년에 대한 교회교육은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청소년들의 구원과 양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청소년사역자들을 위하여 청소년목회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제2기 감리교청소년목회전문훈련과정'을 개최하여 청소년 사역자들을 훈련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고 청소년의 부흥과 발전을 꿈꾸며 청소년사역에 대한 열정과 전문지식을 배우기 원하는 청소년사역자들을 '제2기 감리교청소년목회전문훈련과정'에 초대합니다.

교육국 총무 직무대리 이 화 식

Time Table 일정표

시간	8월 18일(목)	8월 19일(금)
07:00		아침기도회
08:00		아침 식사
09:00		TOUCH 5 “청소년부 목회계획 세우기” 김종석 목사
10:00	등록 및 숙소배정	조별 나눔
11:00	TOUCH 1 개회예배 조은하 교수	TOUCH 6 전체토론 Q&A 진행 : 김신곤 목사
12:00	오리엔테이션	폐회 예배
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후 귀가
14:00	TOUCH 2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김정태 홍보관	
15:00	조별 나눔	
16:00	TOUCH 3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 김인환 목사	
17:00		
18:00	저녁 식사	
19:00	다함께 찬양	
20:00	TOUCH 4 “사명” 다니엘김 선교사	
21:00	개인 기도회	
22:00		
23:00	조별 시간 및 자유시간	

조은하 교수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조은하 교수는 목원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독교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조은하 교수는 교회 교육 현장과의 연결점을 고민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 “교회학교 쇠퇴의 극복을 위해서는 학교식 신앙교육이 아닌 양육 중심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과 “주일학교가 아니라 청소년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장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조은하 교수의 강의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청소년 사역의 이론을 정립하고 체계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김정태 홍보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로 잘 알려진 김정태씨는 UN산하기구인 ‘UN거버넌스센터’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 동시에 공익적인 콘텐츠를 기획, 발굴, 유통시키는 사회적 출판기획가이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변혁을 꿈꾸는 저술가이고, 비전과 리더십, 글로벌 시대의 핵심 역량 등의 다양한 주제로 수많은 대학과 단체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인기 강사이기도 하다. 스토리의 가치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스토리의 위력을 소개하는 김정태 홍보관의 강의는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신선한 열정을 불러일으켜 줄 것이고, 청소년 사역을 새롭게 세워가도록 돕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김인환 목사

20년간 청소년들과 한 호흡으로 살아 온 김인환 목사(광교지구촌교회)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짱 목사’로 통한다. 지구촌교회 교육목사로 부임하고 7년 만에 200명의 청소년을 1,700명으로 부흥시킨 교회학교 부흥의 산 증인이며, 최근에 발간된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를 비롯한 수많은 책들과 교재 집필로 한국교회 청소년 사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현장감이 생생히 살아 있는 김인환 목사의 강의는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사역마인드를 회복시켜주고, 청소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제공 할 것이다.

다니엘김 선교사

10살 때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그 후 미국에서 육군사관학교와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남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는 JGM(예수세대운동) 대표, The Voice Ministries(복음유통사역: 선교사 모집, 훈련, 동원) 대표, 유스코스타 강사로 섬기고 있다. 복음 안에서 사명, 시대분별, 희생을 강조하는 다니엘김 선교사의 강력한 외침을 통해 청소년 사역자들은 자신의 사역의 자리를 점점하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김종석 목사

교회학교 교육에 대한 분명한 이론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김종석 목사(성림교회)는 자타가 인정하는 교회학교 교육의 전문가이다. 교육목사 시절 교회학교 성도를 400명에서 1000명으로 이끈 부흥의 비결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교회와 학교의 교사교육과 청소년집회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는 <교회학교 성장과 교육시스템>이 있다. 김종석 목사의 강의는 청소년부 사역자들이 건강한 청소년 목회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유지하면서 청소년부를 계속해서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데 매우 유의 할 것이다.

I 목차

TOUCH 1	Ecclesiola in Ecclesia : 청소년 교회 세우기 _ 조은하 교수 p.8
TOUCH 2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_ 김정태 홍보관 p.16
TOUCH 3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_ 김인환 목사 p.18
TOUCH 4	사명 _ 다니엘김 선교사 p.20
TOUCH 5	부흥시스템을 세워라 _ 김종석 목사 p.22
참고자료 1	청소년 선교의 실제 _ 박수락 목사 p.42
참고자료 2	그만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_ 이충섭 목사 p.58
참고자료 3	청소년 부흥의 쉬운 공식들 _ 김성기 목사 p.61
참고자료 4	작은 교회 청소년부에서도 떠날 수 있다! _ 김신곤 목사 p.69
참고자료 5	청소년 전도의 중요성과 실제 _ 김선국 목사 p.88
참고자료 6	새날 이야기 _ 이진희 목사 p.95
참고자료 7	청소년 사역 이야기 _ 최세현 목사 p.100
참고자료 8	성례전적인 영성수련을 통한 청소년 교육 _ 최은원 목사 p.103
참고자료 9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_ 이용환 사무국장 p.106

Touch 1

Ecclesiola in Ecclesia 청소년 교회 세우기

| 조은하 교수 _ 목원대학교

I. 여는 이야기

이야기 1: 2011년 대한민국에서 중딩, 고딩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3년 연속 꼴지를 기록

—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한국방정환재단 공동연구, 2011년 5월 발표

초등학교 4학년~고교 3학년 학생 64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는 65.98
점으로 OECD 23개국 중 꼴찌 (평균 100점, 1위 스페인 113.6, 22등 헝가리
86.7)

이로써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주관적 행복지수는 2009년 64.3점, 지난해 65.1점에 이어 3년 연속 꼴찌를 기록.

유니세프 행복지수는 물질적 행복,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주관적 행복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교육성취도를 측정하는 ‘교육’과 생활방식을 측정하는 ‘행동과 생활양식’에서는 최상위 점수를 기록하는 등 모든 차원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서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54.4%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건강, 자유, 친구, 성적, 돈 순..

고등학교 3학년 응답에서는 ‘가족’과 ‘돈’의 비율이 바뀌게 돼 돈이라고 답한 비율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20.5%.

이야기 2: SM 엔터테인먼트 주관한 콘서트에 달려온 그들. 밤새워 서서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는가?

II.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1. 신학적 이해

1)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로서의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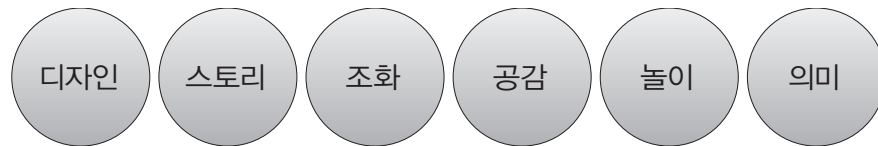
- 영적 가능성의 인간 (Philo, Augustin)
- 왕과 같은 존재 (Von Rad: 인간의 기능과 역할, 신의 형상의 민주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 선포)
- 너라고 부르는 대화의 존재 (칼 바르트)

2) “정원사 (gardener)”로서의 인간 (Matthew Fox)

- Red Blessing: 구원이 필요한 인간, 죄인으로서의 인간
- Green Blessing: 생태적인 동반자로서의 인간, 그리고 매 일상 속에서 신비를 발견하는 인간.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

2. 사회학적 이해

1) 미래사회, 미래교회: 하이터치, 하이컨셉 : 창의성과 감성의 시대 (다니엘 핑크)



2) E. P. I. C. : 영성과 감성을 아우르는 교회 (레너드 스윗)

- 경험 (Experience)
- 참여 (Participatory)
- 이미지(Image-driven)
- 관계 (Connected)

3. 심리학적 이해

1) 자아정체감/ 역할혼미의 시기, 준거집단, 시간조망 (E. Erickson)

2) 개인적 우화, 상상의 청중 (D. Elkind)

3) 종합적, 관습적 신앙에서 개별적, 성찰적 신앙으로 (J. Fowler)

4) 다중지능이론적 이해 (H. Gardner)

III. 오늘날 교회교육의 문제점: 학교식 교육 모델의 문제점

- 1) 신앙생활로부터 분리: 교회내 한 부속기관인 교육활동을 축소 시킴으로 인해 신앙공동체의 전 생활과의 단절
- 2) 신앙공동체로부터의 분리: 학년별 부서별 조직편성으로 인한 세대 간의 분리
- 3) 전문교육으로부터의 분리: 비전문인 평신도 자원자들로 운영됨으로 전문성으로부터 분리
- 4) 포괄적 신앙으로부터의 분리: 교실에서 지식전수에 치중해서 통전적 신앙형성이 어려움

“교회안의 작은 교회 (Ecclesiae in Ecclesia)” 로의 전환 필요:
말씀 선포 (kerygma), 가르침 (didache), 교제 (koinonia),
예배 (leiturgia), 섬김 (diakonia) 의 통전적 구조로 전환 필요

IV. 교회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창조적 변화

1. 청소년 교회의 기본 전제

- 1) 학교식 신앙교육에서 신앙공동체 양육으로의 전환을 의미.
- 2) 학교식 신앙교육이 교재와 프로그램 중심이라면 신앙공동체 양육은 교재와 모든 프로그램이 예배와 교실교육, 소그룹, 섬김의 신앙공동체 안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유기성및 신앙적인 통전성을 갖도록 하는 것.

- 3) 청소년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침 받고, 세움받고, 보냄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에 그들은 신앙과 교회의 주체.
- 4)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어린이 사이의 만남, 세움, 보냄을 신앙경험의 매개로 열어놓는 증언자.
- 5) 온전한 신앙과 신앙공동체의 구조 형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예배공동체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우심에 참여하는 신앙-배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냄심을 증언하는 신앙-섬김공동체를 실천하는 것.
- 6) 교회안의 작은 교회 (ecclesiola in ecclesia)로서 누룩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유기적 생명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
- 7) 산파, 작은 목회자, 안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속에서 영성과 전문성을 실천해 가는 것.

2. 청소년 교회의 구조적 패러다임 전환

- 1) 예배는 회복(부르심과 응답)하는 것. 예배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의 사건을 회복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의 음성을 경청하는 매개이며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산 경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건. 따라서 청소년교회의 예배는 공히 교사와 청소년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함.
- 2) 교실교육 (Classroom Teaching)과 소그룹참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우심에 참여토록 하는 것. 교실교육은 교사의 일방식전달이나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교사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여 성경과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이 삶 속에 주는 의미를 찾아가는 공동의 경험이 되어야 함. 따라서 소그룹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섬김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팀으로서 참여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

러한 참여공동체를 통하여 살아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 (thinking)-사고하는 차원, 느낌 (feeling)-감정적인 차원-, 분위기 (environment)-생각과 느낌이 통합되어 만들어내는 차원이 서로 얹히면서 생동감있는 만남의 교실이 되어야 함.

만남의 교실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과정은 교사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학습자와의 만남에서 출발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오심과 인간의 응답에서 시작되는 것. 이러한 관계를 전제로 교사는 학습자의 편에서 교재를 해석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교재와 만나도록 촉진하는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여기서 강조되는 교육방법과 진행은 ‘강의’만도 ‘토론’, ‘관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와 상황 전체를 느끼고 그곳에서 교재, 관계, 인간의 응답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포괄적인 인간성이 사용되는 것. 이를 코이노니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3) 선교의 비전과 섬김의 실천을 통하여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파송에 헌신토록 하는 것. 선교란 삶과 역사 전체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운행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며 삶속에서 하나님의 증언자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파송에 응답하게 하는 것. 섬김이란 하나님의 보내심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는 것.
- 4) 이러한 체제 속에서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청소년 사이의 만남, 세움, 보냄을 신앙경험의 매개로 열어놓는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이와 아울러 이러한 체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갈 수 있기 위한 가장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차원은 담임목사의 목회적 행정적 관심과 배려이며, 교육목사 또는 교육담당전도사의 지속적인 분석, 계획, 그리고 실천.

교사들의 주역적인 역할로서 청소년 교회 세우기는 교사와 청소년들의 공동적인 참여와 창조에 달려있기에 교사의 진지하고도 집중적인 교육준비와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교사의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사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교사의 역할과 가르침의 전문화를 통하여 교육실천의 첨단화를 실천하는 전문적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청소년교회 세우기를 위한 절차

- 1단계: 담임목사, 교육목사, 교육사를 포함한 교육위원회가 어린이 (청소년)교회에 대한 철학과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위에 목회적이고 정책적인 수용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함.
- 2단계: 교육목사, 교육사 (교육전도사)가 청소년 교회 세우기 전담사역을 담당하여야 함. 청소년 교회 철학을 이해한 교육담당자가 이를 토대로 청소년 교회를 위한 교사모집, 훈련, 실험 (예비)을 기획하고 실천하여야 함. 훈련된 교사와 함께 예비 실험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하며 이를 전교회 차원으로 확대시킬 필요있음. 이때 청소년교회 성공여부는 담임목사의 의지와 교육지도자의 전적인 헌신과 전문성에 달려있음.
- 3단계: 청소년교회 실천을 위한 교사훈련 및 워크샵이 있어야 한다. 교사 훈련과 워크샵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청소년교회란 무엇이며 전환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청소년교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예배공동체, 교실교육공동체, 소그룹공동체, 선교공동체의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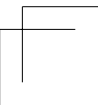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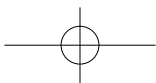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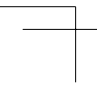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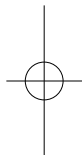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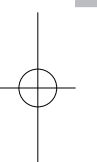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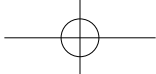
이를 위하여 청소년교회 안에 예배위원회, 교실교육위원회, 소그룹위원회, 선교위원회를 조직하되 교사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함.

- 4단계: 청소년교회의 운영정책을 기획 및 평가하는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창조적 기획으로 개교회에 맞는 청소년교회의 모형을 만들어 가야 함.

Touch 2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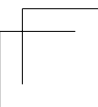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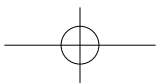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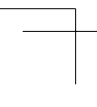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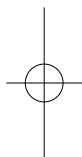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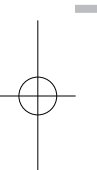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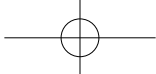
| 김정태 홍보관 _ UN 거버넌스센터



Touch 3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 김인환 목사 _ 광교지구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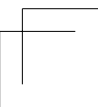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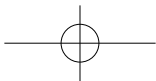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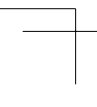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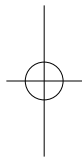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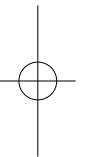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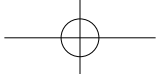




사명

| 다니엘김 선교사 _JGM 대표





청소년부 부흥시스템을 세워라

| 김종석 목사 _ 부천성림교회 담임목사

I. 신앙교육을 통한 부흥시스템을 세워라.

신앙교육은 집어넣거나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집어넣거나 끄집어내거나 제대로 커 주기만 한다면 더 바랄게 뭐 있겠습니까?

신앙교육은 보듬어 주거나 매질하는 것입니다.
보듬어 주거나 매질하거나 바르게 살아 주기만 한다면 그게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신앙교육은 묵상이나 교제입니다.
묵상으로 조이거나 교제로 풀거나 그 뿌리, 깊어지기만 한다면 마음 든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교육은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배우고, 배우기 전에 만나고, 만나기 전에 만나고, 만나기 전에 만나려고...

그래서 우리는 관심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청소년부 교육시스템을 세웁니다.

아마도 이 계획들을 통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꿈쟁이들로 하여금 놀라운 부흥을 체험케 될 것입니다.

II. 사이버레이션을 통해 소통하라.

과거에는 학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사회관계가 이후로는 다른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른바 '사이버레이션'(cyberlation=cyber+relation)의 형태, 즉 웹상에서 형성되는 관계가 점차로 주요한 관계의 형태가 될 것이다.

물론 학연이나 지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관계 맺기 방식도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웹 2.0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계방식이 점차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 다음(daum)의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상의 관계망, 트위터, me2day 등이 새로운 사이버상의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전통적인 그것과는 달리 어떤 특정한 주제(예컨대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이합집산에 의해 유지, 해체되며, 이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성격은 예전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다.

이제는 교회가 기존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이 아닌 쌍방향의 의사

소통, 소통과 공유, 공공성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입이라는 과제를 갖게 된다. 동시에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상이한 의사소통 체계집단간의(예컨대 웹 1.0 vs 웹 2.0) 대화와 소통이 주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Ⅲ. 감성경영의 증대와 감성사역으로의 변화를 꾀하라.

“21세기에는 지식 못지않게 감성도 중시될 것이다.”는 앨빈 토플러의 말이다. 이성과 지식 못지않게 감성은 요사이 경영원리의 주요한 화두가 되었다. 회사에서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고, 격의 없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밑줄을 쳐 선물하기도 한다.

스타벅스 커피점을 보면 그것은 단순히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친밀한 분위기를 파는 ‘감성공간’이다. 요즘처럼 경기가 불황일 때는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즉,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조직원이 가진 열정 및 창의성 및 끈끈한 감성력의 유대감을 살리는 경영이 훨씬 각광받는다고 한다. ‘감성경영’은 교육목회의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성목회’의 핵심은 소통이다. 그리고 그 소통은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교감하고 공감하는 깊은 차원의 소통이다. 교회의 사역자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담당 사역자와 청소년들 사이에, 교회와 지역사회 간에 교회 공간을 소통의 공간구조로 전환하려는 노력, 교회 카페나 문화 공간 등을 적극적으로 소통과 감성공간으로, 문화컨텐츠(뮤지컬, 영화제) 등을 통해 복음적 감성으로 소통하려는 접근이 더욱더 필요할 때이다.

IV. 부흥을 위한 스토리텔러가 되라.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신앙적인 분별력'(discernment)과 그러한 분별을 삶속에서 살아 내는 '실천적 지혜'이다. 이러한 신앙적 분별력과 실천적 지혜는 어디에서 습득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계시하여 주는 '성경'에서 비롯된다. 성경에 계시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역사적 관계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우리가 이제부터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교회공동체가 영원한 가치의 세계에 참여토록 돕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며(envisioning), 삶으로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이전보다 더욱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신앙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이야기(narrative) 속으로 우리의 신앙공동체가 들어감으로써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치관과 인격이 그 안에서 형성되어 갈 때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in the world) 존재하기에 이 세상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of the world)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삶 속에서 품고, 보듬고, 번성케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V. 관리가 아닌 관심으로 대하자.

매주 예배가 끝나면 모든 부서의 사역자들의 표정이 서로 다르다. 그 날의 부서 출석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소년부도 예외는 아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성경에도 온통 숫자 이야기이다. 민수기 1~4장을 읽어 보면 그렇다. 예수님도 ‘잃은 양 한 마리’ 비유에서 백 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고 하셨다.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 6:39)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뜻이 아니니라.”(마 18:14)

복음서에는 12제자, 70인 전도대,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인 사건 등에서도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행 2:41), 약 5,000명(행 4:4)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수학이나 통계학이 아니다. 이 숫자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숫자이다. 영혼의 숫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사명이요, 자질이다. 숫자 놀음 같은 목회가 아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모인 숫자를 파악해야 한다.

VI. 청소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라.

1. 신호등으로 구분하라.

신호등에서 초록색은 멈춤 없이 전진하고, 노란색은 서기 위해 준비해야 하고, 빨간색은 정지해야 한다. 이것을 청소년부 출석상태에 대입시킨다. 그

리고 그에 따른 조치(관심)를 상황에 맞게 해 주어야 한다.

2. 교인 자녀들에게 집중하라.

교인자녀들 중에서 청소년부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교인 자녀들을 청소년부에 나오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영받는다. 교인자녀들은 교회에 대한 어색함이 별로 없고, 부모님도 좋아하신다. 또한 교인 자녀들은 어릴 적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한 경우가 많다. 다음세대 신앙전승을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3. 장년 대예배에만 참석하는 청소년들을 놓치지 마라.

어떤 청소년들은 성인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들이 청소년부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오후에 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청소년부가 낯설고 친구가 별로 없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참석을 권유하면, 처음에는 ‘다음에요’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상당수는 청소년부에 참석하게 된다.

4. 신입생들을 확보하라.

초등부나 중등부에서 올라오는 청소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온다. 사전에 미리 충분한 만남을 가지고, 이벤트들을 만들어 그들과 접촉점을 가지라. 그래야 그들이 청소년부라는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5. 관리가 아니라 관심을 보이라.

청소년부에 잘 출석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지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필자가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청소년들이나 성도들에게 “필자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1순위는 관심이었다. 관심이 가장 큰 방법이다.

6. 생각날 때 즉시 연락하라.

한 주 연락을 하지 않아서 한 주 그 청소년이 참석하지 못한다면 다음에 그 청소년을 다시 만나는데 걸리는 일수는 하루가 아니라 14일이다. 그러니 생각날 때 바로 연락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관심을 통한 진정한 부흥이다.

7. 토요일은 피하라.

사역자들이 한주일 내내 바쁘게 살다가 토요일이 되면 그때서야 지난주 보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을 받아도 그 청소년은 그렇게 반갑지 않아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관리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전화 심방은 주일 모임이 끝난 후가 가장 좋고, 아니면 목요일 전에는 꼭 연락을 해야 한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다.

8. 멘토, 멘티를 정해라.

사역자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교사, 청소년간, 또는 청소년과 청소년간, 아니면 청년과 청소년간 멘토, 멘티를 정하

여 활용하라. 상당한 부흥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VII. 부흥을 위한 사역자의 언어 습관

1. 2%가 모자란 대화를 해라.
2. 말하려 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 주라.
3. 뱀 장수(약장수)의 말을 써라.
4. 뻘뻘한 이야기 보다 편편(fun fun)한 이야기를 하라.
5. 고급 승용차보다 앰불런스를 몰아라.
6. 서당 훈장이 되지 말고, 식당 아줌마처럼 아부하라.
7. 부정적인 백 마디보다 긍정적인 한마디를 하라.
8. 생각은 현인처럼, 말하는 것은 범인처럼 하라.

9. 웅변가가 되기보다 스토리텔러가 되라.

10. 자신감을 갖고 말하는 것을 즐겨라.

VIII. 청소년부 부흥시스템(원리) 세우기

‘교육목회’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즉, 목적이 설정되고 그 목적을 지향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교육목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목적을 설정하는 일이다. 여기서 목적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인 ‘목적’(Goal)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인 ‘목표’(Objectives)로 구분된다. 우선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목적 설정은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목회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 상을 기초로 해서 교육목적이 설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목적 설정의 한 예를 들어보자. 에베소서 4: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에 기초해서 교육목회의 목적을 설정한다면,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작은 그리스도(Today’s little Christ)가 되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앞의 예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자. 오늘의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다. 교육목회가 추구해 나아가야 할 일종의 궁극적인 목적지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현재 이 지

점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현재 교육의 대상인 청소년들을 교육목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 목표 진술이다.

이 목표 진술을 위해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교육목회는 궁극적으로 ‘오늘의 작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지행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지금보다 한 단계 신앙을 성숙한 차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IX. 청소년부 부흥시스템의 구체적인 틀 세우기

청소년부 부흥시스템의 구체적인 틀은 교회와 청소년부의 형편에 맞게 실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첫째, 청소년부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현재 우리 청소년부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교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한다.

둘째,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청소년부의 우선적 필요를 파악했으면 이것을 위한 단기 계획, 즉 1~2년 내에 실시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중·장기적 필요를 파악했으면 5년 내 그리고 10년 내 실시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프로그램이 결정됐으면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기존 프로그램들을 연구 조사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들 가운데 청소년부에 도입할 만한 것이 있다면 세밀하게 평가하여 적절한 형태로 적용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어떤 프로그램은 벤치마킹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직접 만들어 사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교사들을 훈련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나 준비물들을 마련한다. 그 후 홍보하여 청소년들을 모집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한 청소년 목회는 곧 '생명공동체'를 지향해야한다.

생명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목회 프로그램은 다음의 두 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교회의 내적 요소인 생명체(개인)의 양육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생명문화(공동체)의 형성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의 내적 건강을 위해 교사들과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일깨우고, 각양 은사를 따라 개인(지체)과 공동체(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할 건강한 그리스도인” 육성을 위한 소그룹 중심의 보다 체계 있고, 철저한 영성훈련 프로그램과 교육실천이 요청된다.

X. 청소년부 부흥시스템의 구체적인 틀 세우기 – 9가지 원리

1. 확실한 교육목표(SMART의 원리)를 세워라.

- ① Specific/ 좋은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주님께 합당한 삶’, ‘신앙 성숙’ 너무 막연하다. 실천 여부를 평가하기도 막연하다.

- ② Measurable/ 성취 여부를 측정 평가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 예)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 ③ Attainable/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목표는 달성 하려고 있는 것이지 남에게 보여 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Result-oriented/ 분명한 결과를 지향할 것이다.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에 그치지 말 것
- ⑤ Time-bounded/ 시한을 정해야 한다.
‘언젠가 하겠지’ 하는 식의 계획은 옳지 않다. 이와 같은 계획은 나태나 포기로 가는 길일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재미있는 유익한 모임이 되도록 하라.

신세대는 스타일리스트를 표방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타일리스트가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그들이 만나는 사람에게서 매력 포인트를 찾으려고 한다.

3. 주일 프로그램을 단순화 하라.

굳이 옛날부터 해 왔다고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교육 목표, 또는 교육의 주안점에 따라 어느 하나의 활동에 온 힘을 집중하는 패러다임을 시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주안점, 또는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그 주안점을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의 틀 거리를 아주 단순화시켜 활동의 집중성을 높이는 것이다.

4. 창의적인 보조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주일 활동이 예배를 중심으로 한 회심, 영적 성숙에 관심을 두었다면, 보조 프로그램은 양육과 훈련, 교제에 초점을 두는 교육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라.

신세대는 대부분이 식구가 단출한 핵가족 출신이다. 때문에 이들이 핵가족 환경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가정 공동체’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가정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6. 청소년 중심의 교육을 하라.

신세대는 발달심리학 특성상 무엇인가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자율성이 아주 강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 의식도 매우 강하다. 따라서 그들은 강요받기를 싫어하며, 스스로 이야기의 결론을 도출하길 원하고 그 결론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길 원치 않는다.

7. 가정, 부모와의 연대를 모색하라.

청소년부와 가정, 교사와 학부모는 학습자를 향해서 서로 순환적인 협력자의 관계에 서 있다. 청소년부와 교사는 가정에 학습 원리 및 학습 정보, 학습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가정과 학부모는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교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둘이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 학습자를 향한 교육은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8. 지도자는 말씀과 지도력을 회복하라.

아무리 좋은 환경과 교사들의 열정이 있을 지라도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에게 말씀과 지도력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표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는 좋은 말씀과 지도력을 가지고 이를 교사들과 공유해야 한다. 예) 체계적인 교사교육

9.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 예배를 Check in하게 하라.

예배는 연출이나 기획이 목적이 아니지만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배를 체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막의 설계도, 성막에 들어갈 기구, 제사장이 입는 의복과 제사를 지낼 때의 순서도 세밀하게 알려주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신다는 것이다.

청소년부 예배 체크 리스트

2011년 월 일 작성자: _____

- 예배 30분전에 예배사역팀들(리더, 안내팀) 중에 정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 예배시작 전 예배를 위한 예배실 정리는 되어 있었는가?
- 예배시작 10분 전까지 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가?
- 예배시작 10분 전까지 예배사역팀들은 정위치 되어 있었는가?
- 찬양대는 몇 시 몇 분에 찬양대석에 앉아 있었는가?
- 예배 전 찬양은 몇 시 몇 분에 시작되었는가?
- 음향에는 이상이 없었는가?
- 영상에는 이상이 없었는가?
- 예배 순서가 다음순서로 넘어갈 때 끊어진 것은 몇 번이나 있었나?
- 기도 인도자의 준비 상태는?
- 찬양대의 찬양과 찬양대의 예배 태도는 어떠했는가?
- 찬양팀의 선곡과 찬양 인도는 어떠했는가?
- 찬양시간 회중들의 찬양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 설교 시간의 집중도는 어떠했는가?
- 파워포인트 영상, 찬양 가사가 제 때 나오지 않은 것은 몇 번 있었는가?
- 파워포인트 찬양 가사에 오타는 몇 개나 있었는가?
- 설교가 시작된 이후에 온 사람은 몇 명이었는가?
- 전체적인 예배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 오늘 예배에서 가장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XI. 청소년부 부흥시스템 세우기의 실제

1. 2012년 청소년부 부흥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1단계

– 계획을 세우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 1) 2011년에 세운 청소년부의 비전과 목표들이 잘 실천되었는가?
- 2)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예배, 전도, 소그룹 등)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었는가?
- 3) 청소년부에서 가정 잘 되는 프로그램과 안 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4) 잘 안 되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진행했는가?
- 5)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부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무엇인가?
- 6)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만족도는 어떤가? 이를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본 적이 있는가?
- 7) 건강한 청소년부 부흥을 위해 담당 사역자의 역할과 청소년, 교사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8) 청소년부의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목회자 스스로 많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각 영역에서 평신도(전문가)와 협동하는가?
- 9) 우리 청소년부는 교회와 특별히 담임목사와의 관계를 잘 맺고 사역을 하였는가?
- 10) 2012년 청소년부의 비전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은 무엇인가?

2. 2012년 청소년부 부흥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2단계
-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파악

1) ○○교회 사명(Mission):

2) ○○교회 목표(Goal):

3) 목회 십계명: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⑥ | ⑦ | ⑧ | ⑨ | ⑩ |

3. 2012년 청소년부 부흥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3단계
- 청소년부 교육목회 철학(교육담당 부교역자)

1) 청소년부 교육사명(Mission):

2) 청소년부 교육목표(Goal):

3) 청소년부 교육목회 십계명: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⑥ | ⑦ | ⑧ | ⑨ | ⑩ |

4. 2012년 청소년부 부흥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4단계

– 2012년 청소년부 교육목회 계획

1) 교육목회 비전:

2) 교육목회 표어:

3) 교육목회 주제 성구:

4) 2012년 교육목회 5대 중점사항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 ⑤ _____

5. 2012년 청소년부 부흥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5단계

– 2012년 청소년부 분야별 중점 교육목회 계획

1) **예배:** 찬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배는 생방송이다. 따라서 잘 짜여진 각본과 그것을 분담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삶의 회복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은 예배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2) **전도:** 전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제시를 통하여 청소년, 교사들과 청소년부의 목표를 함께한다. 기존의 청소년들이 중

심이 되어 있는 교회를 새가족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교회로 전환해야 한다. 새가족 시스템을 구축하라.

- 3) **교육:** 구체적인 (교사, 청소년)교육시스템을 구축하라.
- 4) **제자훈련:** 제자훈련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은 예수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청소년들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 5) **소그룹:**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를 세우기 위한 훈련과정이 있어야 한다. 소그룹은 단순한 교제와 성경공부를 넘어서 돌봄과 성장과 번식이 있는 영적가족이어야 한다. 소그룹 리더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함께해야 한다.
- 6) **상담:** 자기 내면의 상처를 찾고 치유하여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집단상담, 나를 찾아서 등의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가족갈등, 가정구조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7) **섬김:** 서로가 섬김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1년 중 목회계획 속에 섬김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한다.
- 8) **코이노니아:** 담당 사역자가 청소년들에게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인식시켜야 한다. 공동체적 삶의 기본자세는 섬김이다. 섬김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 밖의 세상에서 까지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 9) **재정:** 청소년부라 할지라도 재정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예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10) **교사:**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역들을 가능케하는 최고의 도움이들은 교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체계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6. 2012년 청소년부 부흥시스템 세우기 위한 6단계
- 2012년 청소년부 비전 실천을 위한 10가지

- 1) _____
- 2) _____
- 3) _____
- 4) _____
- 5) _____
- 6) _____
- 7) _____
- 8) _____
- 9) _____
- 10) _____

청소년 선교의 실제

서울영광교회 청소년 사역을 중심으로

박수락 목사 _서울영광교회

●서울영광교회 청소년 사역 현황

1. 서울영광교회 청소년 사역

2. 국내 선교 훈련

- 1) 국토 순례
- 2) 음악을 통한 선교 활동
- 3) 등산을 통한 선교 활동
- 4) 지역 사회 봉사 활동
- 5) Korean - American Students Exchange Program

3. 해외 선교 훈련

- 1) 해외 단기 선교 훈련
- 2) 미국 홈스테이 프로그램

4. 학원 선교 활동

- 1) 캠퍼스 예배와 원어민 영어 성경공부
- 2) 중고등학교 상담 프로그램
- 3) 대안학교 프로그램 지원

5. 결론

1. 서울영광교회 청소년 사역

서울영광교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주제로 ‘하나님 사랑(헌신)’ ‘나라 사랑(애국)’ ‘부모님 사랑(효도)’을 가르치며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을 훈련하고 있다. 서울영광교회에서는 청소년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항상 ‘나의 비전’을 제창하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나의 비전 : “나는 영적 지도자이다!”

“나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민족과 세계를 위해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겠다!”⁰¹

우리의 기독교 교육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다그 함마셀드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한 것처럼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도록 모범을 보이고 인도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다그 함마셀드는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의 소집에 응했다. 그는 비록 그것이 오해를 받고 엄청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일지라도 자신이 세계 공동체의 이웃들을 향하여 기운찬 선수로, 이타적인 의무의 수행자로 부름받았다고 믿었다... 다그 함마셀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운명을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헌신을 하였다.⁰²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적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르쳐서 이들이 시대를 알

01 박수락, 『서울영광교회 교회학교 해외 선교 훈련 교재』 서울영광교회 교육자료 5 (서울, 서울영광교회, 1996), 38.

02 James Wm. McClendon, Jr., Biography as Theology – How Life Stories Can Remake Today's Theology (New York: Abingdon Press, 1974), 62.

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정의와 뜻에 따라 변화시키는 기독교적 지성인, 기독교적 전문인, 기독교적 기술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⁰³

서울영광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비기독교인 청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를 위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청소년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이들이 다함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2. 국내 선교 훈련

1) 국토 순례

서울영광교회에서는 1년에 2회-3회 정도 순교 유적지나, 주요 도시, 농어촌이나 산촌 교회 등을 방문하며 선교 비전과 열정을 키우고, 공동체 훈련을 하고 있다. 보통 2박3일 내지 3박4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영성훈련과 섬김의 훈련, 극기 훈련 등을 한다.

03 김영한, “새천년을 향한 대학 문화와 학원선교,” 『대학과 선교』 2권 (2000), 96.

비전2007 제주 청소년 리더십 캠프⁰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국토 순례

- 주제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이사야 60:1)
- 부제 : 나는 영적 지도자이다!
- 일시 : 2007년 1월 22일(월) ~ 25일(목) 3박 4일간
- 장소 : 제주도(인천, 제주도, 한라산, 목포)
- 주관 : 서울영광교회 교회학교

선교훈련 일정표

시간\일자		첫째 날(1/23월)	둘째 날(1/24화)	셋째 날(1/24수)	넷째 날(1/26목)
오 전	06:00~06:30		기상 침묵훈련	기상 침묵훈련	기상 침묵훈련
	06:30~07:00			공동체훈련 및 아침 식사	
	07:00~08:00		영성훈련 강사 : 박수락 목사님	“함께 이겨요” Together Super Power 한라산 등정 (함성지르기)	공동체 훈련 및 아침식사
	08:00~12:00		제주도 선교훈련		제주 출발 -세계를 향한 선교 열정을 가슴에 품고
	12:00~01:00			즐거운 점심시간	한라산 등정
오 후	01:00~04:00	교회 집결 모이자~ 신나는 겨울 캠프로!	“비전 나누기” 선교훈련	“단결합시다” 한라산 등정	목포 도착 선교 훈련
	04:00~05:30	교회 출발~		너는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목포 출발(16:40) 사랑의 교제 서울 도착(19:53)
	05:30~06:00	인천항 도착			
	06:00~07:00	제주도로 출발	저녁 식사		
	07:00~09:00	저녁식사 저녁예배 사랑의 교제	성령 충만 부흥성회 강사 : 박수락 목사님		
	09:00~10:00	지파별 기도회 및 일기 쓰기 “우리는 하나 - 하나님,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나”			집으로! 세계를 가슴에 품고 당당히 앞서 나가자!
	10:00~06:00	취침(주님과 함께 꿈나라로)			

04 박수락, 『비전2007 제주 청소년 리더십 캠프』서울영광교회 교육자료 20 (서울, 서울영광교회, 2007), 2.

2) 음악을 통한 선교 활동

서울영광교회에서는 찬양단과 보컬 밴드팀, 바이올린 교실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영성 훈련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연습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 디 프리본은 “청소년과 음악”의 필요성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음악을 통해서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것 이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역의 기회는 별로 없다. 음악 세계의 혁명은 창조성과 참여에 있어서 보다 큰 자유의 가능성을 개방시켰다. 음악의 형식과 표현의 양식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또한 이들에 의한 음악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여의 기회는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음악적 표현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전에는 전혀 없었던 기독교인의 생활 양식에 대한 개념과 신앙의 교리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청소년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아닌가!⁰⁵

에베소서 5장 19-20절에서는 찬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3) 등산을 통한 선교 활동

서울영광교회에서는 ‘청소년 등산 교실,’ ‘스포츠 클라이밍 스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라산이나 덕유산 등을 종주 등반하기도 하고, 북한산, 도봉

05 이 디 프리본, “청소년과 음악,” 로이 주크/와렌 벤슨 『교회의 청소년 교육』(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Roy Juck and Warren Benson, ed., Youth Education in the Church, Chicago: The Moody Bible Institute, 1978]), 386.

산, 불암산 등지에서 리지등반⁰⁶이나 암벽 등반⁰⁷ 등을 하기도 한다. 특히 ‘스포츠 클라이밍 스쿨’⁰⁸을 통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서울시 교육감배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하여 자신감을 얻기도 하였다.

등산은 각박한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등산에는 꿈이 있고, 준비가 있고, 철학이 있고, 우정이 있고, 열정이 있고, 사색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극복이 있고, 휴식이 있고, 성취감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또 다른 순수한 인생이 있다.

또한 청소년들과 산 속에서 야영을 하기도 하는데, 도시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심신 수련에 큰 도움이 되며 청소년들도 무척 좋아하는 편이다.

오늘날 캠핑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이는 부분은 야외 캠핑 영역이다. 이를 통해서 특히 문제 청소년과 영적으로 “삶증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⁰⁹

야영장의 선택은 가능하면 해가 지기 전에 선택해야 한다. 텐트를 설치할 때는 ① 장소를 정하고 바닥을 평평하게 고른다. ② 텐트를 조립한다. ③ 배수구를 판다. ④ 주변을 정리한다. 또한 야영을 끝내고 돌아갈 때에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떠난다. 이런 훈련을 통해 청소년들은 협동심과 책임감을 배우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06 리지는 보통 능선 길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암릉을 타는 것을 말한다. 보통들 리지 등반을 암벽등반보다 쉽게 생각하는데 리지 등반도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고 산행을 하면 사고가 많이 난다. 리지 등반도 정식으로 배우고 훈련을 받은 후에 해야 한다.

07 암벽등반은 말 그대로 북한산 인수봉이나 도봉산 선인봉 같이 거의 직벽으로 된 바위의 사면을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08 스포츠 클라이밍은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암벽에서 등반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실외용과 실내용이 있는데 인공암장을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오르내리는 것이다.

09 윌리엄 그윈·로이드 코리, “캠핑,” 로이 주크/와렌 벤슨 『교회의 청소년 교육』 신창기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Roy Juck and Warren Benson, ed., Youth Education in the Church, Chicago: The Moody Bible Institute, 1978]), 566.

4)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데이비드 마이어스는 학생들에게 ‘봉사학습’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할 것을 말한다.

십대 청소년을 교육시킬 때, 자기의 동네를 청소하게 하고, 노인을 돕게 하면, 청소년에게 유능감이 생기고 봉사의 욕구가 증가하고, 결석률과 낙오율이 감소한다.¹⁰

서울영광교회에서는 찬양단과 보컬 밴드팀 등이 서울보훈병원이나 우성원과 같은 장애인 복지 시설 등을 방문하여 위문 공연을 하고, 3·1 운동 기념 지역 교회 연합예배 등의 행사가 있으면 다함께 참여하여 연주 활동을 하며 봉사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은평 천사원 같은 곳에서 2박 3일 봉사 활동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 등산 교실’이나 ‘스포츠 클라이밍 스쿨’ 등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 청소년들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섬김의 훈련’을 하고 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결식 학생이나 소년소녀 가장 돕기 등을 하고 있다. 부록 참조

5) Korean – American Students Exchange Program

한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대학생들이 ‘SYK 청소년 리더십 센터’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 대학생들은 한국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게 된다. 또한 한국 학생들과 함께 봉사 활동을 하고 현장 학습을 한다.

10 데이비드 마이어스, 『심리학의 탐구』김유진·민윤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7[David G. Myers, Exploring psychology (New York: Worth Publishers, 2005)], 91.

(1) 목적

미국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청소년 영어캠프를 실시함으로 다양한 한미문화 교류를 통해 글로벌 시대 주인공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함.

(2) 기대 효과

- ① 홈스테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을 준다.
- ② 한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미국식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
- ③ 지역 사회 봉사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 ④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인식하여 한국 민간 외교 사절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한·미 교환학생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2010 여름 미국학생 한국방문 일정표
American - Korean Students Exchange Program
(July 5 - July 19, 2010)

Program Itinerary :

일 자	프 로 그 램
7월 5일(월)	LA to Korea
7월 6일(화)	한국 도착 → 충남 서산 팔봉중학교(감리교 계통학교) 방문
7월 7일(수)	팔봉중학교 영어 수업 및 선교 활동, 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7월 8일(목)	팔봉중학교 영어 수업 및 선교 활동, 한국 역사문화탐방
7월 9일(금)	팔봉중학교 영어 수업 및 선교 활동, 충남 서산 → 서울로 이동
7월 10일(토)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Yanghwajin Foreign Missionary Cemetery

일 자	프 로 그 램
7월 11일(주일)	주일예배, 청소년 선교 공연,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7월 12일(월)	초등학교 방문 영어 수업 및 전도, 장애인 복지 시설 방문 및 봉사 활동
7월 13일(화)	초등학교 방문 영어 수업 및 전도, 연세대, 이화여대 방문 Yonsei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7월 14일(수)	중학교 방문 영어 수업 및 전도, 감리회본부 방문, 정동제일교회 방문, 경복궁 방문 Gyeongbokgung, or the Palace of Felicitous Blessing
7월 15일(목)	중학교 방문 영어 수업 및 전도, 인사동 역사문화 탐방 및 길거리 전도 활동
7월 16일(금)	청계천, 남산, 남산골 한옥마을, 남대문 시장 방문, 상동교회 방문.
7월 17일(토)	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방문 Tour the Freedom Bridge (at Imjingak Park), the 3rd Tunnel & DMZ Exhibition, the Dora Observatory, the Dora Mountain Station
7월 18일(주일)	주일예배, 청소년 선교 공연,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송별 파티
7월 19일(월)	Korea to LA (미국 영어캠프 참가 한국 학생과 함께 미국으로 출발)

3. 해외 선교 훈련

1) 해외 단기 선교 훈련

서울영광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선교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기도 하며 이를 계기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워나가도록 해외 단기 선교 훈련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이판 · 중국 · 필리핀 · 일본 등으로 가기도 하고, 유럽 배낭 여행을 하면서 기독교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도 한다. 2007년 중국 비전 트립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첫째는 기독교 유적지 탐방(심양, 명동, 용정), 둘째는 고구려 역사 탐방(단동, 집안, 통화,

백화, 백두산), 셋째는 만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명동, 용정, 연길, 삼합)이다.

〈비전 2007 중국 선교 훈련 일정표¹¹⁾〉

- 주제 : 세계를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자!(신명기 28:1)
- 일시 : 2007년 8월6일(월) -10일(금) 4박 5일간
- 장소 : 중국 심양, 단둥, 집안, 통화, 백화, 백두산, 명동, 용정, 연길, 삼합
- 주최 : 서울영광교회 교육국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요 일정
제1일 08/06 (월)	인천	항공 KE833	10:00	서울영광교회 출발 / 기도회
			15:05	인천 출발
	심양	전용버스	15:45	심양 도착
			16:30	신의를주와 마주한 국경도시 단둥으로 이동
	단둥		19:30	북한이 운영하는 북한식당에서 저녁 만찬 및 공연관람
			21:00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은혜의 시간
제2일 08/07 (화)	단둥	전용버스		북녘 복음화의 날
		열차	07:30	민족의 역사와 함께 흘러온 압록강 탐방
	집안			*정쟁의 상흔 압록강 단교
				*유람선을 타고 북한 제2의 도시 신의주시/위화도 조망
	통화			*북한 복음화를 위한 선상예배
			10:00	고구려 두 번째 도읍지 집안으로 이동
			15:30	민족의 자랑스런 역사 고구려 유적 탐방
				*동북아를 제패한 민족의 영웅 광개토태왕 (광개토태왕비, 광개토태왕릉,장수왕릉)
				*위대한 고구려 문명과의 만남 (환도산성, 산성하 고분군, 국내성 터 등)
			18:30	석식 후 통화 이동
			21:30	백화 이동(침대열차 6인실)

11 박수락, 『비전 2007 중국 선교 훈련』서울영광교회 교육자료 21 (서울, 서울영광교회, 2007), 2.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요 일정
제3일 08/08 (수)	백하 백두산 연길	전용버스	06:00 08:00 전일	[민족복음화의 날 - 백두산] 백하 도착/백두산 이동 민족의 숨결이 살아있는 백두산 도보등정 *백두산의 장관 장백폭포 탐방 *민족복음화를 위한 백두산 기도회 200만 재중동포의 중심지 연길이동 연길 도착 후 복지병원 방문 석식 및 호텔 투숙
제4일 08/09 (목)	연길 용정 삼합	전용버스 열차	08:00 전일 15:10	[민주지역 독립운동을 주도한 민음의 선진들과의 만남] 만주 독립운동의 성지/토지의 무대 용점탐방 *독립운동의 정신 일송정, 해란강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배출한 대성중학교/전시관 *운동주시비, 운동주 생가, 만주 한인 신앙공동체의 뿌리 명동교회 두만강의 국경도시 삼합 탐방 - 합경북도 회령시 조망 연길 열차역으로 이동 연길 출발
제5일 08/10 (금)	심양 인천	전용버스 항공 KE834	09:00 11:00 14:40 16:45 19:30 22:00	존 로스 목사와 한국인 동역자들의 비전이 살아있는 최초의 한글성경 번역/출판 성지 동관교회(문광서원) 방문 청태조 누르하치와 황태극의 청나라 황궁 심양고궁 탐방 중식 후 동북 최대의 코리아타운 심양 서탑거리 탐방 및 땅 밟기 공항 이동 심양 출발 인천 도착 서울영광교회 도착 / 기도회

2) 미국 홈스테이 프로그램

청소년들은 4주 동안 미국 기독교 사립학교 연합회(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United States Members)의 멤버인 기독교 명문 사립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하고, 현지 미국인 크리스천 가정에서

숙식을 하며 미국인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면 참가 학생들은 미국의 다양한 기독교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그들에게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도 하게 된다.

■ 캠프의 목표

- 1) **믿음** : 캠프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영성 훈련에 목표를 둔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미리 신앙 훈련을 하며 여행 중에도 아침, 저녁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훈련 한다. 또한 기독교 가정에서의 생활과 학교에서의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과 문화를 체험하도록 돕는다.
- 2) **소망** : 미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고, 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풍성한 축복의 삶을 배운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일류 국가로 성장한 배경을 청교도 정신에서 배우고 우리 청소년들도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성장하도록 훈련한다.
- 3) **사랑** :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한다. 홈스테이 가정과 학교에서 보고 배운 제품과 섬김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청소년들도 남을 돕고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훈련한다.
- 4) **영적 지도자** : 하나님께는 헌신을, 부모님께는 효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충성과 봉사를 하는,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4. 학원 선교

학원선교라는 특수영역이 그 안에 안고 있는 구성은 복합적이며, 그 구

성에 접근하는 방법은 극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¹² 예수의 교육 방법은 다양하고 다원화한 방법이었다. 즉 그가 임하는 현장과 만남과 대화가 있는 곳에는 교육이 실시되었고 그의 생활자체가 교육방법의 모본이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교육 방법은 평범하면서도 다양하게 구현되었다.¹³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제자 훈련을 하여서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이 제자 훈련은 세포 조직과 같은 것인데 세포 조직은 그룹 형성인 것이다. 여러 종류의 작은 단체를 만들어서 철저한 제자 훈련을 하여 조직을 확대해 나갈 때 학원의 복음화는 이루어질 것이다.¹⁴ 그러므로 학원선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평신도의 소명의식과 은사의 다양성을 인식시킴으로 그들이 학원선교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¹⁵

1) 캠퍼스 예배와 원어민 영어 성경공부

서울영광교회는 교회 근처의 중학교에서 청소년 예배를 드리며 학원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또 토요일과 주일에는 원어민 영어강사가 교회 주변 지역에서 모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 성경과 주기도문 등을 가르치며 복음을 심어주고 있다. 매주 수요일 ‘학교교사기도회’로 모여, ‘학생들의 기도 모임’도 점차 확대하여 가고 있다. 부록 참조

또한 관내 중학교 등지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원어민 영어교실,” “논술반,” “시사토론반,” “스포츠 클라이밍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중고등학교 상담 프로그램

예수에게 있어서 교육방법에는 “참여”를 통한 “만남”과 “만남”을 통한

12 은준관, “학원선교의 개신교적 접근,”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 76호 (1981), 40.

13 유정득, 『학원선교의 이론과 실제』 (대구: 보문출판사, 1979), 26.

14 김정훈, 『학교선교의 지름길』 (서울, 보이스사, 1987), 46.

15 박형순, “학원사역의 패러다임전환을 위한 변혁적 리더십의 유효성,” 『대학과 선교』 8권 (2005), 183.

“대화”가 이루어지게 했고 또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천신지가 전개되는 역사가 진행되어 가게 했다¹⁶. 한국의 초·중기 청소년 대부분은 공부와 씨름하면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¹⁷ 가출, 일탈, 비행, 약물남용 등 학업 부적응, 따돌림, 충동적인 성행동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함께, 이시기의 독특한 문제 형태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¹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상담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피상담자가 하루하루의 삶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인도할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되어 가도록 하는 일이다. 청소년 상담을 다른 종류의 상담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문제 자체가 특이 할 수 있으나, 청소년 상담 역시 크게는 다른 어떤 종류의 돕는 일과 같은 것이다.¹⁹

성인상담에 비해 청소년 상담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들의 배경에는 가정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거의 모든 경우에 나타나고 있다.²⁰

필자는 매주 3회 정도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서 청소년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주로 학업 문제나 가정 문제, 신앙상담을 하고 있다. 때로는 청소년의 성문제 상담, 청소년의 우울증 상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상담, 청소년의 자살 상담, 부적응 청소년의 상담 등을 하기도 한다.

3) 대안학교 프로그램 지원

서울영광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중학교과정 공립대안교육 위탁

16 유정득, 『학원선교의 이론과 실제』(대구, 보문출판사, 1979), 35.

17 오윤선, Ibid., 192.

18 오윤선, Ibid., 193.

19 게리 콜린스, “청소년 상담,” 로이 주크/와렌 벤슨, 『교회의 청소년 교육』(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Roy Juck and Warren Benson, ed., Youth Education in the Church, Chicago: The Moody Bible Institute, 1978]), 628.

20 오윤선, Ibid., 194.

교육기관 미래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이 학교의 운영 목표는 정규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위탁교육함으로써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통해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²¹

이 학교의 위탁대상 학생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학생이다.

- 가)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 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 포함).
- 다)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라) 학교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다.²²

서울영광교회 박수락 담임목사가 학생들의 상담을 맡고 있으며, 서울영광교회 소속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학생들에게 영어와 미국 문화 등을 가르치고 있다.

5. 결론

청소년기는 심리적 이유기로 발달단계상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

21 방재우,『미래학교 교육계획서』(서울, 공립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미래학교, 2008),79.

22 Ibid., 83.

고 준비해 가느냐에 따라 한 개인의 인생행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그 개인에게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²³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선교 대상은 청소년 선교이다. 청소년기의 중심 과제는 자아정체성의 확립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시기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 정체성이 그의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살게 되면 교회와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 될 것이다.

교회는 학교 성적 위주의 교육이나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 필요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들의 재능과 능력과 물질 그리고 시간을 선교를 위해 사용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현재 교회 내에는 청소년들을 지도할 만한 훈련된 영적 지도자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 지도자가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 선교는 대개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청소년 선교에 대해 보다 더 폭넓은 관심을 가질 것과 청소년 지도자 육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예수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청소년은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23 오윤선, 『청소년의 이해와 상담』(서울, 예영 B&P, 2006), 192.

그만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이충섭 목사 _ 의정부 승리교회

7년 전에 경민IT고등학교에 설교하러 가게 되었다. 전에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유학을 가신다고 해서 내가 맡아서 설교하게 되었다. 경민IT고등학교는 기독교계통 학교이다. 매주 수요일 1교시가 학급예배 시간이다.

학급예배시간에 종교부장이 나와 사회를 보고 찬송을 부르는데 어느 날 봄인데 찬송가를 고요한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도 했다. 기도를 하는데 나라를 위해 학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학생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기에 다양한 기도를 많이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없이 그냥 끝내는 학생도 많이 있다.

문제는 설교시간이다. 설교시간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해도 학생들은 떠돌고 장난친다. 예배시간은 짧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 학생들과 이야기한다. 그래도 학생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학교수업을 끝내고 몇 학생들이 따로 와서 이것저것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지만 여전히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힘들고 어려운 경민IT고등학교 설교지만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다. 올해는 학생들이 어떻게 해든지 설교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가서 설교했다. 매 주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찾아 설교를

만들고 잘 들어주길 바라며 준비해 간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잘 듣는 것 같은데 몇 번 이것저것 보고 나서는 어김없이 떠돌고 만다. 요즘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참 궁금하다. 요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나는 학생들에게 외친다.

- 꿈을 가지라고
- 예수님을 믿으라고

나는 중학교 때 교회에서 선생님에게서 〈청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은 나를 지배하고 있다. 나는 학생들이 막연하게 살지 말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지난 7년 동안에 학교를 자퇴하는 사람,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사람,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보았다.

나는 경민IT고등학교에서 왜 설교를 하고 있을까?

때로는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다. 학교 가서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학교 가서 설교하는 것이 교회부흥에 도움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과 물질이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하여 설교하러 갔는데 학생들이 들어 주지 않을 때 정말 어찌해야 할이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

그래도 나는 경민IT고등학교 설교를 하고 있다.

올해 우리반 학생이 쓴 글이다.

“나는 경민IT고등학교를 와서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신기했다. 신기해서 설교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을 들으며 새로운 삶, 희망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경민IT고등학교를 오기 전에 경민이 종교하는 과목을 배운다고 들었다.
그래서 문가 신기하고 재밌어보였는데 솔직히 난 불교라서 거부감도 없지 않
아있었는데 직접 들어보니 새롭고 재밌었고 삶에 대해 깨달은 게 많이 생긴
것 같다”

어느 학생은 “설교가 정말 좋다.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삶에 대해 진
정으로 생각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우리학생들은 떠들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일까?

어느 목사님께서 “가르치지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학생
들을 사랑하기보다 가르치는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다. 설교가 정답을 말
해 주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설교를 들은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받고 싶은 학생들 관심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을 사랑하기에 많이 부족하다. **그만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청소년 부흥의 쉬운 공식들

김성기 목사 _ 만수중앙교회

I. 성령 충만을 통한 청소년 부흥목표가 불타올라야 한다.

- 청소년 전문 사역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 성장은 모두의 기쁨이다.
- 양적성장은 질적 성장도 함께 동반한다.
- 청소년 부흥은 청년부흥, 장년 부흥으로 이어지기에 교회침체를 극복하는 길이다.
- 청소년기의 회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서의 삶으로 인도한다.
- 청소년 부흥은 교회의 일꾼양성의 지름길이다.
- 청소년 부흥은 나라의 발전과 세계평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중요한 열쇠이다.
- 장 단기 출석목표를 세워라.

ex) 영광교회 0 → 15 → 30 → 50 → 70 → 100명

대림교회 70 → 140 → 210 → 300 → 400 → 500 →
1000명

II. 지역 환경조사

- 1) 초등학교와 학생 수 조사
- 2) 중고등학교와 학생 수 조사
- 3) 우리교회 청소년들의 학교별 분포 수 조사
- 4) 지역교회들의 재적, 출석 학생 수 조사
- 5) 우리 교회 학생들의 주거지 조사

※ 교회 가까운 지역부터 전도하여 범위를 넓혀갑니다. 중고등부는 아동부와 청년부의 중간위치로 중요한 허리역할을 감당하여 교회학교 전체 성장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 지역의 가난한 어린이, 학생들을 위한 쉼터와 공부방을 운영하고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Food를 모아 일년에 2회 정도 행사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타 교단 지역교회들과 함께 연합 선교행사도 갖는 것이 좋습니다.

III. 학교앞 전도

- 학교 앞 전도는 학생관리의 좋은 방법이다.(새신자, 장기 결석자)
- 학생들과 함께 전도할 수 있어 좋다.
- 초청 행사시 초청장을 준다.
- 껌, 사탕, 초콜릿 등을 교회 학생과 전도대상자에게 준다.

●대림교회 학교앞 전도의 예

성남중/고등학교, 대영중/고등학교, 강남중학교

남서울교회, 영신고등학교, 평강교회 대길초등학교, 은석교회 문창중학교

대림성당 대림교회, 보라매초등학교, 대림중학교 대방중학교, 보라매교회, 신대림초등학교 수도여자고등학교

양문교회

●대림교회 주변 환경

- **수요일** : 대림 중학교, 신대림 초등학교.
- **목요일** : 강남중학교, 문창중학교.
- **금요일** : 성남 중·고등학교, 대영 중·고등학교, 대길초등학교
- **토요일** : 영신고등학교, 대방중학교, 수도여자 고등학교, 대림중학교.

※ 등, 하교길을 이용하여 학교앞 전도를 한다.

초등학교를 먼저 방문하고 중고등학교를 감으로 아동부와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전도를 한다. 학교마다 점진적으로 전도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전도대상자도 많이 확보가 된다.

IV. 6학년 관리 및 전도

- 초등학교 하교길 학교앞 전도에 아동부 교역자 교사와 함께 나갑니다.
- 남자 교사, 교역자는 남자 어린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전도합니다.
- 여자 교사, 교역자는 여자 어린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전도합니다.
- 6학년 축구교실에도 가끔 나가 함께 운동하며 음료수 지원도 해 줍니다.
- 수시로 생활속에서 6학년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인사하며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운동도 함께 하며 친해집니다.
- 여력이 되면 5학년 이하의 어린이들도 만나 인사와 가벼운 놀이체육 등으로 친해집니다.

- 많은 어린이를 만나고 친해지면 이들이 중학생으로 올라왔을 때, 전도가 쉬워집니다.
- 6학년 교사를 중등부로 올리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 12월 초에 6학년을 중등부로 올려 12월 동안 학교앞 전도와 개인전도를 병행하면 관리와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 6학년 성장은 중등부 성장의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V. 스포츠 전도

축구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 지역 학교 운동장에 나가 축구하는 학생들을 만나 함께 운동하며 친해집니다. (1:1, 3:3, 7:7, 11:11)
- 다른 학교 팀과 경기를 주선해 줍니다.
- 전도 대상자를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 초청 예배시 초청합니다.
- 축구 전도를 전담하는 교사, 신학생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 친해진 전도대상자들을 만나 가끔 음식을 나누고 교회에 불러 친숙하게 하고 양육단계로 발전시킵니다.

농구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 지역 학교 운동장에 나가 농구하는 학생들을 만나 함께 운동하며 친해집니다.
- 팀을 나눠 친선경기를 합니다.
- 지속적으로 전도대상자를 확보 합니다.
- 교회 팀과 친선경기를 주선 합니다.
- 친해진 후 분위기를 보고 중고등부실로 인도하여 맛있는 간식을 먹고 주일 예배에 초청합니다.
- 길거리 농구대회를 열어 전도대상자 팀들에게 초청장을 줍니다.

- 지속적인 만남과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전담농구전도 교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02년 대림 중학교 3학년 20명 축구전도의 예

- 2003년 대림중학교 3학년 20명 축구전도
- 2004년 영신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중고등학생 10명 농구전도
- 2005년 대림중학교 1학년 5명 축구전도, 대영중학교 1학년 4명 축구전도, 강남중학교 2학년 7명 축구전도,
- 강남중학교 3학년 6명 축구전도, 영광, 인자, 신흥교회와 친선경기
- 2006년 대림중학교 운동장에서 고등학생 1학년 전도대상자 5명과 대림교회 고등부 친선경기
- 대림중학교 3학년 3그룹과 친선 농구, 축구경기

VI. 전화심방

1. 토요 오후 전화심방은 주일 출석률 15%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1) 교사 : 매주 1회 이상 전화 및 문자보내기
전도한 학생에게 친구 데려오라고 권합니다.
 - 2) 장기 결석자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편지를 보내며 생일축하도 해줍니다.(학교 앞에서 만남)
 - 3) 담당교역자 : 자주 결석하는 학생 전화 상담 및 권면.
 - 4) 새신자 전화
 - 5) 학생 : 토요일은 모든 학생이 전도된 학생과 전도대상자 친구에게 전화를 하도록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전화시 따스한 말과 칭찬을 해 주도록 합니다.

VII. 총 출석 및 친구초청 잔치

- 매월 1회 토요 수업 있는 다음 날 주일에 행사를 갖습니다.
- 출석률이 다른 주보다 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초청장을 만들고 행사를 풍성히 준비하도록 합니다.
- 담당 교역자, 교사, 학생 모두가 기도로 하나가 되고 힘을 다하여 나아갈 때, 놀라운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림교회의 예

- 초청 인사 : 김승중 교수(건양대 심리학교수)-‘아름다운 인간관계’
- 허남진 집사(축구묘기 기네스북 보유자)-‘간증과 축구묘기 쇼’
- 지인환군-‘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 인터뷰 비디오 상영
- 학교 보컬 동아리 초청(동아리 회원과 친구들 7명 전도)
- 매직쇼
- 자체 행사 : 독창, 중창, 섹스폰, 플룻 연주
- 절기별 연극 예배
 - ※ 피자파티를 준비하고 학년별 모임, 또는 레크레이션을 한다.

VIII. 열린예배

- 첫 주 : 전통예배
- 둘째주~네째주 : 찬양예배 예배순서- 찬양, 성경, 특송, 설교, 찬양, 헌금송, 축도.
- - ※ 열린 예배로 학생 눈높이에 맞게 예배 준비를 하여 더욱 은혜가 넘친다.

IX. 역할 분담

은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면 일에 효율성이 있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 설교

- 첫 주, 셋째 주 : 담당목사, 신학생
- 둘째 주, 넷째 주 : 전도사
- 다섯째 주 : 장로

☞ 전도 및 관리

- 여자 교사, 교역자 : 여자학생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관리한다.
- 남자 교사, 교역자 : 남자학생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관리한다.

☞ 전화심방

- 고3학생 : 청년부와 관련된 교사를 세워 관리
- 여학생 : 여전도사
- 남학생 : 남자전도사
- 부 장 : 교사들에게 전달사항을 문자 및 이메일 보내기

☞ 교사회

부장선생님이 주관하여 진행한다.

☞ 은사별 봉사

성가대, 중창단, 연극팀, 보컬팀, 축구, 농구전도팀, 공부방, 안내팀 등을 운영한다.

X. 교사확보

- 1) 부흥하면서 가장 요청되는 것은 교사수급문제이다.
- 2) 청장년 선교회, 여선교회, 새신자위원회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 3) 고등학생들을 잘 양육하여 졸업과 함께 중등부 보조교사를 하도록 한다.

작은 교회 청소년부에서도 떠날 수 있다!

바로그교회 청소년 태국(파타야)단기선교여행記

김신곤 목사 _바로그교회

해외여행은 여건이 허락된다면 젊었을 때 경험하는 것이 좋다. 세계관도 넓어지고, 현지인들과 부딪히면서 이색적인 지구촌의 문화를 가깝게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환경과 시간이 허락되는 사람들은 기회를 잡아 너도나도 해외여행을 떠난다. 무분별한 해외나들이는 자제되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크리스천들은 해외여행을 떠나지만, 크리스천들은 선교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한다.

그런데 해외단기선교여행이 좋다는 것은 다들 동감한다. 기회만 되면 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대개 교회들이 넉넉하지 못한 재정 때문에, 풍부하지 못한 인적 자원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회 리더십들이 청소년들을 향한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의식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부 해외단기선교여행을 망설인다. 청년부 언니 오빠 형 누나 청년들은 조금만 맘먹으면 쉽게 떠난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거룩한 푸대접이 있다. 아직 어리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아니다. 작은 교회 청소년부에서도 떠날 수 있다. 옆의 큰 교회들이 봄을 조성해서 해외단기선교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씨가 말라버린다. 그래서 기고자는 작은 교회들의 청소년부와 지도자들에게 도전을 주고자 이 글을 쓴다.

1. 태국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면 불교국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광책자와 홍보영상물에 해인사, 불국사, 석굴암, 불상, 팔만대장경, 템플스테이 등이 한국의 전통문화재로 소개되고 있는 터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태국을 어떤 종교의 나라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역시 태국은 불교국가라는 생각이 대다수이리라 생각된다. 물론 전통적으로 불교가 거의 지배적이긴 하나 전혀 그렇지 않다. 태국 역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다. 현지인 목사님도 있고, 현지인 교회들도 있다. 물론 이 이면에는 선교사님들의 눈물겨운 기도와 고독한 사역과 열정어린 헌신이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2. 태국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교의 통로



영화 꾸언므호
(Hello tranger)

요즘 동남아가 그렇지만 태국에서도 드라마 대장금, K-pop, 걸그룹 등의 한류 열풍이 뜨겁다. 태국 방콕 등 대도시의 지하철에서는 한류스타들의 광고판을 아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태국 박스 오피스 1위, 흥행 1위, 태국 영화 역사상 5위권을 차지한 태국의 인기 영화 ‘꾸언므호(Hello Stranger)’는 촬영 95%를 한국에서 진행했다. 한국 올로케이션 영화다. 태국의 두 젊은이가 한국의 문화를 겪으면서 사랑이 싹트는 로맨틱 코미디물인데, 이 덕에 ‘서울’이라는 도시는 ‘로맨틱한 사랑이 있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고, 촬영지였던 남이섬과 명동도 부각되어 있다. 한국과 한국인을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미 한국 정부에서는 이 한류열풍에 편승해 다각도로 한국을 홍보하고 있고, 한식세계화에 맹렬히 도전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우리 크

리스천들과 교회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한류열풍은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또 다른 선교의 통로’라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이 한류열풍을 타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매우 쉽고도 높다.

3. 해외(태국)단기선교여행의 준비 : 비전과 목적의식 모으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분명하고도 뚜렷한 비전과 목적의식을 모으는 일이다. “왜 가는가?” “뭘 하러 가는가?”다. 이에 다음 3가지 성경구절이 해외 단기선교여행의 비전과 목적의식을 불러일으키는데 핵심이 될 것이다.

첫째는 딤후전 2:4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all men to be saved), 진리를 아는 데에 이끄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정리했다. 이 비전과 목적의식이 그의 목숨을 건 3차례 전도여행을 열정적으로 이끌어 간 에너지였다. 그래서 제자 디모데에게도 이 비전으로 도전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둘째는, 마 28:19~20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명령하시는 대위임령이다.

그리고 셋째는 행 1:8에 나타난 성령님의 비전이다. 사도 바울의 절친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witnesses …… to the ends of the earth).”고 선포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의 비전! 이 얼마나 분명하고도 확고한 비전인가?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 삼위일체론적인 비전을 교회공동체와 청소년들에게 깨닫게 하고 호소하는 작업이 해외단기선교여행의 비전과 목적의식을 모으는 일이다. 꿈과 비전과 목적이 모아지면 떠날 수 있다. 이 얘기는, 꿈과 비전과 목적이 모아지지 않으면 떠날 수도 없고,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말이다. 다행하고도 감사하게도 우리 바로그교회 청소년부에서는 이 비전과 목적의식이 충분히 발동 걸려 모아졌다. 그래서 다녀올 수 있었다. 기억하라! 해외여행은 돈으로 가지만, 선교여행은 꿈과 비전으로 간다는 것을!

4. 재원마련

재정마련은 실질적인 문제다. 그러나 이렇게 결론짓는다. ‘기도하면 이뤄진다.’고!.. ‘간절히 바라면 이뤄진다.’고!.. ‘거룩한 꿈과 열정 앞에 아무런 장애물은 없다.’고!.. 어찌 보면 참으로 무식한 발상이다. 거룩한 무식함이다. 그러나 이게 지름길이고 이게 해답이다. 크리스천들은 정답으로만 살지 않는다. 우린 해답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린 어렵지만 하나님은 쉽다. 우리 바로그교회는 개척 4년 된 작은 교회이고, 아직 건물도 없는 월세교회다. 당연히 재원마련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꿈까지 작진 않았다. 거룩한 꿈에 불타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되는 장년 교인들과 기도하며 꿈을 소망하며 기도와 찬양하기를 3달, 어느 날 충남 서천의 서천장로교회에서 적잖은 재정과 선교지에 가지고 갈 물품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서천장로교회(장년 600여명의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 몇 명과 청소년 된 자녀들이 함께 동참할 수 없겠냐는 것이었다. 뭘 망설이겠는가? 이건 당신의 비전 앞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었다. 흔쾌히 승낙했고, 함께 떠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아 주신 태국(파타야)단기선교여행팀 인원이 청소년 포함 총 24명이 구성되었다. 모아진 재정 총 합계액은 200만원 상당의 선교물품을 제외하고도 약 1,400

만원의 재원이 마련되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 때부터 벌어졌던 것이다. 기억하라! 선교여행 재정만 걱정하면 발버둥 쳐봐도 못 간다는 것을!

5. 방콕 도착

청소년들은 거룩한 흥분에 여권을 만들고, 약간의 태국 돈(바트)과 달러로 환전하고, 청소년 선교팀 실행부는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 탑승권을 확보한 후, 일정을 짜고, 핸드북을 만들고, 선교물품들을 박스에 담았다. 교회 분위기가 선교적 꿈과 비전 때문에 흥겨워진다. 목사의 기분이 좋다. 2010년 8월 16일 오전 10시 20분 홍콩을 경유하는 타이항공에 우리 선교팀은 거룩한 흥분을 꿈과 비전에 함께 실었다.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단체 인증샷^^



거룩한 흥분을
꿈과 비전에 담고

선교여행기간은 4박 6일. 이윽고 15시 50분(현지 시간) 계획하고 오랜 시간 영혼구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한 땅 태국의 방콕국제공항에 도착했고, 마중 나온 파타야 에덴감리교회 김기병 목사님 일행의 극진한 환영을 받았다. 준비된 현지 버스에 짐과 몸을 싣고 목적지 파타야로 향했다.

6. 동남아시아 파타야로!

우리 바로그교회의 청소년 선교팀이 찾아 간 곳은 방콕에서 1시간 20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는 파타야(Pattaya)라는 국제적 휴양도시였다. 40년 전만 해도 작은 어촌이었던 이곳은 베트남전쟁 때 우타파오에 미국 공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병사들이 왕래하며 휴가를 즐기러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날 아시아 휴양지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국제적인 휴양지가 되었다. 파타야는 태국의 또 다른 휴양지인 푸켓(Phuket), 필리핀의 세부(Cebu), 인도네시아의 발리(Bali),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Kota Kinabalu)와 함께 동남아 5대 휴양지 중의 하나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건설한 휴양지는 말 그대로 환락의 도시일 뿐이다.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휴양지 파타야는, 40일 후에 무너질 니느웨 도성을 3일간 걸어 다니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던 요나의 심정 그대로일 뿐이었다. 해외여행은 놀러 가지만, 선교여행은 전하러 간다.

7. 감동의 선교사역 소개

1) 반퐁끄롬 초등학교 방문 사역 : 소망사역



반퐁끄롬학교
장학금 전달

우리 청소년 선교팀은 제일 먼저 파타야 지역에 있는 반퐁끄롬학교를 방문했다. 비교적 넉넉해서 세상 물질 모르는(?) 우리교회 청소년들은, 그곳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태국학생들과 만남에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음을 쉽게 가늠할 수 있었다. 청소년을 포함한 우리 선교팀은 즉석에서 현금을 모아 5명의 태국 학생들에게 꽤 넉넉한(?) 장학금과 학용품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했



라면이 매울텐데
잘 먹어주니
고맙다

다. 잠시 후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감사장을 하나 인쇄 해가지고 나오셨다.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었지만 현지 선교사님은 몇 주 전에 다른 선교팀이 다녀갔는데 우리 선교팀이 대표로 받는다고 한다. 감사히 받고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약속했다. 우리는 계획한대로 각자의 여행 가방에서 라면들을 다 꺼내어 100여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로 한국 라면을 끓여주었다. 그야말로 특별식이다. 태국에서는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 라면이 귀하다고 해서 끓여 제공할 것을 계획하게 되었다. 우리가 먹는 라면 1봉지는 태국 어린이 3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청소년 중 몇몇 학생은 개인 여행 경비들을 모아 인근 가게에서 과자와 요구르트를 사 가져와 일일이 나눠주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초코파이 같은 과자인데 한화로 치면 가격이 아주 싸다. 자발적인 저 소망적인 마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다니! 감동이 된다.

준비해 간 풍선아트와 찬양과 율동으로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며 잠시 흥겨운 시간을 베풀어 주었는데, 태국 사람에 비해 비교적 얼굴이 하얗고 예쁘장한 우리 여자 청소년들을 보면서 한국 연예인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한류열풍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



청소년 선교팀 몇몇 학생들은 사비를 모아



즐거운 찬양과 율동으로 흥겨운 시간을



반동고롬학교 학생들과 배구시합을 마친 후



하얀 얼굴빛의 청소년들을 보며 연예인? ^^

2) 빈민촌 탐방 : 공흘사역

파타야는 휴양도시답게 화려하고 물질중심적인 소비도시이다. 그런데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과거 우리나라 60~70년대의 빈민문화를 접할 수

옷과 쌀을
나눠주는
청소년들



환자들을 위해
안수기도 집회



치통인데 파스를
붙여줬다. 며칠 후
에 나아갔다.



있다. 우리 청소년 선교팀이 찾아간 곳이 그곳이다. 간단한 선교팀 소개와 청소년들의 찬양 울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후, 현지 태국인 목사님의 통역으로 복음을 전달했다. 그리고 현지에서 구입한 5kg들이 쌀 50봉지와 한국에서 준비해간 여름한옷 200여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목사와 현지 선교사님은 빈민촌의 환자들을 위해 치유를 비는 안수기도도 실시했다.

빈민촌 환자들을 위해 안수기도를 하던 중 성령님께서 선교팀원들의 마음을 터치하셨다. “목사님, 이거 발라주면 안돼요?” “저분은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거 같은데 제게 두통약 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이것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이것도 되나요?” 순간 각자의 가방에서 소화제, 두통약, 안약, 일회용 밴드, 진통제, 파스, 각종연고, 상처 치료제 등 간단한 의약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 상자쯤 족히 되는 양이었다. 이 약들은 선교여행 중 만일에 대비해 준비해 간 개인 구급약품들이었다. 청소년 선교팀은 열외 없이 꺼내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먹이고, 발라주며 손에 쥐어 주면서, 말도 안 통하는데 손짓 발짓으로 약품용도를 설명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파타야의 기적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하도록 어시스트했던 어린 아이(요

6:9)의 자기 도시락 내려놓음이 재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역시 내려놓음은 늘 감동적이다. 솔직히 복음보다는 빵과 약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들! 버려진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충격적인 환경을 목격하면서, 이들을 위로하며 섬기러 간 청소년 선교팀의 눈망울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목사는 보았다.

“궁홀히 여기는 자가 축복되다(마5:7).”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 남을 궁홀히 여기라는 100번의 설교보다 단 한 번의 빈민촌 탐방 경험을 통해 청소년 선교팀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깨닫기에 충분했다. 비록 2시간여의 짧은 섬김이었지만, 궁홀사역을 마치고 파타야 빈민촌을 빠져 나오면서 청소년 선교팀의 마음엔 뿌듯함과 동시에 “아! 더 드릴 것은 없을 까?” 하는 아쉬움이 자리 잡았다. 궁홀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라!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기적이 있다!

3) 영유아 탁아소 방문 : 사랑사역

우리 청소년 선교팀은 파타야에는 순복음교단 소속의 현지 태국인 목사님과 사모님이 운영하는 영유아 탁아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위탁된 영유아는 50명 정원으로 받는데 대개가 '싱글맘'이라고 한다. 휴양도시인 파타야의 사회 환경 상, 이런 저런 사유로 아기를 혼자 낳아 키우게 됐다는 것이다. 엄마가 하루 위탁하는데 30바트(한화 1천원)정도 된다고 한다. 이 아이를 맡겨야 엄마가 파타야 도심의 가게, 상점, 카페, 바(bar) 등지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게 된다는데, 그나마 실제로 30바트를 내는 경우



현지 관계자들, 영유아들과 청소년 선교팀



페이스 페인팅 이벤트

남학생도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는 절반에 그치고, 나머지는 교회가 무료로 돌보는 실정이라고 한다. 물론 탁아소 운영의 한계 때문에 정원이상 돌보지 못하는 영유아들이 더 많다는 하소연에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하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비전도 품어 본다. 뽀망뽀망하고 앙증맞은 태국 영유아 아기들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 “사와디 캅!(안녕하세요)”하면서 우리 청소년 선교팀을 반기는 모습을 처음 본 순간, 우리는 기쁨과 사랑과 애처로운 감정에 흠뻑 젖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도 준비해 간 크레용, 색연필, 스케치북, 색종이 등 학용품 3박스과 영유아용 T-셔츠 100여벌(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새벽에 도매가로 싸게 구입)을 전달했다. 그리고 목사의 말씀전달과 청소년들의 찬양과 율동 후, ‘페이스페인팅’ 이벤트를 펼치면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 주었다. 동행한 청소년 선교팀의 부모님들은 동남아의 달콤한 열대과일을 한 바구니 사다가 깎아 먹여주면서 즐거운 사랑의 한 때를 보내었다. 철없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사랑을 어찌 다 알라마는, 이 시간만큼은 성령의 은혜로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기에 충분했다. 다들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했지만 떨어지지 않는 발에 신발을 신고 문을 나와야만 했다. 우리 청소년 선교팀을 바라보던 뽀망뽀망한 태국 영유아 아기들의 눈망울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4) 산호섬 텐 중학교 방문 : 비전사역

우리 청소년 선교팀은 한국 청소년들과 태국의 청소년들을 만나는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곳은 파타야 부두에서 보트를 타고 약 30분 남태평양을 가로질러 건너가는 산호섬에 위치한 텐 중학교를 방문하는 거였다. 우리로 말하면 낙도섬에 위치한 작은 중학교인 셈이다. 중학교인데 한 학급은 초등학생들의 교실도 있었다. 우리 청소년 선교팀이 도착하자 얼마 후 한 학급

정도의 40여명의 중학생들이 산뜻한 교복 차림으로 강당에 나와 두 손 모아 “싸와디 갑!” 하며 맞이해 준다. 자기들 또래의 외국 청소년들을 만나니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들 한다. 한국말로 각자 자기소개를 하면 통역을 듣고 태국 청소년들이 히죽히죽 반갑다고 웃는다.



태국 친구들에게 소개되는 청소년 선교팀

청소년 선교팀은 찬양, 율동을 한 후 태국청소년들에게 필요할만한 학용품과 장학금을 또 전달했다. 재미있었던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히(?) 준비해 간 한류 연예인들의 브로마이드 70여장(서점을 운영하는 집사님의 협찬(?)을 받음)을 태국청소년들에게 나눠주는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던 일이다. 학생들은 물론 지도하시는 태국 선생님들도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먼저 가지려고 난리다. 한류연예인이 이리 좋을까? 준비해간 학용품보다 이걸 기대했나보다.^^ 인류의 슈퍼스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성화 사진을 저렇게 좋아할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이 곧 오기를 소망하면서, 일단 이들의 선교팀을 향한 맘 문을 여는 데는 대박(?) 성공했다.



장학금 전달



한류 연예인 브로마이드를 들고 좋아한다.

복음전파에 욕심이 많은(?) 목사인 나는 이때가 찬스다 싶어, 통역을 세워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다. “예수님이 보내서 저희들이 여길 왔습니다.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 바라고, 알길 바라고, 믿기를 바랍니다.”고! 그리고 다 같이 두 주먹을 불끈 쥐

게 하고는 태국말로 “칠아(민으라) 프라짜오(왕) 예수!”를 목청껏 소리 질렀다. 청소년 선교팀들의 마음에도 불꽃이 튀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크리스천이 되고 나중엔 태국인 목사, 선교사가 나올 거라고 믿는다.

5) 산호섬 해변청소 : 아웃리치 봉사사역

산호섬 해변 청소
아웃리치



한국 자매들은
인기 짝이다!



남태평양 바다의
산호섬에 왔으니~



우리 청소년 선교팀은 양국의 청소년들 끼리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자, 산호섬 해수욕장의 해변을 청소하는 아웃리치 봉사사역을 실시하자는 제의를 했고, 텐학교 교장 선생님은 흔쾌히 협조해 주었다. 파타야를 관광하는 외국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중의 하나가 산호섬이다. 산호섬 투어는 해양레저로 유명해서 인기가 많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 우리 청소년 선교팀은 즉석에서 자원봉사자를 받았는데, 30여명의 텐학교 청소년들이 즐겁게 따라 나와 주었다. 더운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더 좋았을까? 아니다. 한국에서 온 멋있고 예쁜(?) 청소년 선교팀과 같이 있고 싶어서였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국제적으로 다 똑같은 거 같다. 우리 청소년 선교팀은 이들과 함께 1시간에 걸쳐 산호섬 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를 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러시아, 미국, 싱가포르 등 외국 관광

객들이 우릴 보고 “Who are you?(누구냐?)”, “come from?(어디서 왔냐?)”고 쳐다보면서 묻고, 우린 “Come from KOREA! We are Christian in Korea!”라고 자랑스럽게 커밍아웃하면서 크리스천이라는 자부심을 충만하게 느끼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청소년 해외단기선교팀을 데리고 오길 정말 잘했다. 그렇다. 해외여행은 자기를 위해 가지만, 선교여행은 남을 위해 간다.

6) 워킹 스트리트(Walking Street) 거리에서 : 전도사역

휴양도시에는 으레 환락가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쾌락과 환락을 즐기기 위함이다. 안타깝게도 다국적 인구 50만의 파타야도 예외는 아니다. 창세기 18~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현재 재현된다면 바로 이 모습 그대로 일 터다.

파타야의 쾌락과 환락의 밤 문화 중심지가 바로 ‘워킹 스트리트’라는 거리다. 여자보다 더 예쁜 게이문화, 뱀쏘, 무에 타이(킥복싱), 노천바, 아슬아슬한 복장의 무희들, 관광 상품을 파는 가게들, 등이 저녁 6시부터 새벽까지 2km 가량의 거리에서 네온사인을 불태우고 있는 거다. 우리 청소년 선교팀이 이 거리를 걸으면서 전도지를 나누는 전도사역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현지 선교사님께 안내를 부탁했다. 그런데 청



워킹 스트리트 입구에서 출발 전



Jesus Christ, Please!



예정치 않았던 즉석 목요기도회를 마치고

소년 선교팀 내에서 잠시 의견이 분분해졌다. 이유인 즉은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역효과가 생길 것이니 청소년들은 제외시키고 성인들만 전도하러 가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워킹 스트리트의 음란성은 심각했기에 우려 할만 했다. 우리 선교팀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나누고 있을 때, 마침 선교사님의 교회에 워킹 스트리트에서 제복을 입고 민간 경찰을 하시는 한국인 집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셔서 아주 든든한 도움을 얻었다. 다만 둘씩 흠어지지 않고 24명이 집단적으로 뭉쳐서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하기로 결정했다. 전도지를 전하면서 내뱉는 선포의 말은 딱 한 마디, “Jesus Christ, Please!”로 정했다. 입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한 후, 한국인 경찰 집사님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워킹 스트리트 거리를 걸으며 전도했다.

침엔 그 화려함과 배타적인 분위기에 놀려 머뭇거렸지만 우린 “Jesus Christ, Please!”하며 뚝뚝하게 전도지를 돌렸다. ‘거룩한 뚝뚝함’으로 말이다. 한 20분 쯤 걸어 중심부에 도착했을 때 한 집사님이 “우리 여기서 이 거리를 위해 통성기도 좀 해요!” 외쳤다. 분명히 그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던 게다. “그래요!” 그렇게 우린 한목소리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을 한 후, “주여! 이 도시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해 주옵소서 (창19장).” 통성기도를 했다.

목사로서 나는 이렇게 간절히 도전적으로 정말 뻥세게(?) 기도하는 청소년들을 오랜만에 봤다. 청소년 선교팀들도 겁(?)이 났던 게다. 겁나면 소리치잖은가! 거룩한 야성이 살아나는 시간이었다. 이날은 화요일 저녁이었는데, 우리 청소년 선교팀은 파타야 워킹스트리트 한 복판에서, 불과 10여분뿐이었지만 예상치 않았던 짧고 굵고 뜨거운 화요기도회를 은혜 충만하게 가졌던 것이다.

7) 황금 불상(왓 카오치짠, Wat Khaochichan) 앞에서 여리고기도회

태국이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많은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태국어로 ‘왓 카오치짠(Wat Khaochichan)’이라 불리는 황금 불상이다. 왓 카오치짠은 파타야에서 3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실버레이크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 태국의 한 기업가가 국왕의 즉위 50주년을 기념해 금을 부어 만든 것으로 거대한 불상을 만들어 국왕을 위해 기증을 했다고 한다. 산 하나를 통째로 인공으로 깎아 절벽 바위를 낸 후, 3cm 깊이로 불상을 파고 그 홈에 50톤가량의 엄청난 양의 금을 부어 만들었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6년 동안 사형수들이 동원되면서 상당수의 사형수들이 죽어나갔다고 한다.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불상 앞 30m 전까지만 접근을 허용한다. 누구든지 이 황금 불상 앞에 서게 되면 높이 130m, 폭 70m의 어마어마한 크기에 압도당한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상이다. 그야말로 여호수아서 6장에 등장하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따로 없다.



파타야의 왓 카오치짠 황금불상



주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보라”고 하신다.

이런 곳에서 통성기도를 한다? 우리 청소년 선교팀은 담대함으로 우리의 의지와 성령님의 용기주심을 힘입어 중보 기도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혹자는 모 일간지 지평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정탐여행’, ‘땅 밟기 기도’ 등 ‘선교 용어가 불편하다.’느니 ‘영적 대결 뜻이 담긴 일부 단어들 때문에 선한 목적을 가리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²⁴느니 하면서 선교 용어를 순화하자는 제안을 했

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에 대한 태도가 ‘중세 십자군 식’, ‘영적 제국주의식’, ‘영적 우월주의식’을 표방하면서 물불 안 가리고 선교 대상국의 전통문화를 일방적으로 정죄하고, 폄하하는 태도는 아주 잘못된 태도다.

그렇다고 이러한 우상의 형상과 제단들을 보면서 동조, 인정, 수용해서 선교와 전도의 거룩한 야성(野性, Holy wild)까지 무디게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파타야의 ‘왓 카오치짚’이나 방콕의 ‘왓포(Watpo) 사원’에 누워있는 불상 같은, 혀를 내두를 만큼 거대한 황금 불상 앞에 서면 그런 말은 싹 사라질 것이다. 신명기의 모세나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터키~그리스~에게해를 주름잡던 사도행전의 사도바울께서 이런 것을 본다면 뭐라고 하시겠는가!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 (신 4:25)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신 5:8~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4~5)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왕상 18:17~18)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

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중략)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행 17:22~24, 29)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청소년 선교팀에게 “이것들을 보라(Look at these, please!).”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선교팀은 “주여, 이 땅을 공혹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하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태국과 파타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자. 보내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영혼을 사랑하면 떠나게 되어 있고 보내게 되어 있다. 가든지 보내든지(Going or Sending)!..

8. 사후 행정정리

우리 청소년 선교팀은 태국(파타야)단기선교여행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체험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교과서에서 줄 수 없는, 실로 많은 경험들이었다. 그래서 사진들을 모아서 동영상으로 만들고, 25 청소년들 자신들이 체험한 간증들을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다. 청소년 선교팀은 우리 청소년들의 4박 6일간 이 섬김과 봉사와 경험들을 행정적으로 정리, 칭찬해 주고 싶었다. 언제인가 본부 교육국의 정현범 목사님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포상,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생각이 났다. 그래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산하의 <사단법인

봉사활동 확인서류

아름다운 청소년들(사무국장/이용환)이 확인, 인정하는 18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아서 각 학교에 제출하게 해주었다. 중.고등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정한 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일도 중요하잖은가! “이게 웬 떡이냐!” 뜻하지 않은 18시간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해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웬 떡’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체험한 섬김과 봉사와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이 얻게 해주는 보너스였다. 이 봉사 확인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더하시리라(마6:33).”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태국(파타야)단기선교여행을 마친 사후에 또 경험할 수 있었다. 교회의 목회적 입장에서는 청소년들 스스로 “나는 바로그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이 대단히 상승시켜 주는 일이 되었다. 얼마나 좋은가! 해외선교여행에서 얻는 유익함이 너무 많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9. 결론

- 1) 한류열풍은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또 다른 선교의 통로’라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자!
- 2) 선교여행 재정만 걱정하면 발버둥 쳐봐도 못 간다. 그러나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합당하고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해외단기선교여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중의 하나다.
- 3) 해외여행은 놀러 가지만 선교여행은 전하러 간다.
- 4) 해외여행은 자기를 위해 가지만 선교여행은 남을 위해 간다.
- 5) 해외단기선교여행 도중에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소명(calling)을 발견하게 된다.

6) 떠나라! 성령님이 디자인하신 기적이 그곳에 있다!

7) 청소년들로 하여금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상승시킨다.

첨언

예수문화선교사 씨뿌리는사람들 주최
태국(파타야)단기선교여행 청소년/청년 목회 지도자 비전 트랩

- 일정 : 11월 7일(월)~11일(금) (4박 6일)
- 대상 : 목사, 전도사, 청소년/청년부 부장 및 교사
- 예상경비 : 80만원 (해당 기간 국제유가 환율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항공료, 리조트 체류, 투어 비용 등)
- 모집마감 : 9월 11일까지 16명 정원 선착순 마감
(선입금 20만원과 여권 복사본 필요)
- 프로그램 : 청소년/청년 태국(파타야)단기선교여행 체험, 청소년목회에 관한 강의 등
- 신청 및 문의 : <http://cafe.daum.net/ccm> ('씨뿌리는사람들')
☎ 010-2256-9191(김신곤목사)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바로그교회'를 검색, 사진들은 다음카페 '씨뿌리는
사람들'을 검색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전도의 중요성과 실제

영등포중앙교회 청소년부 사역을 중심으로

김선국 목사 _ 영등포중앙교회

1.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청소년들이 떠나가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 교회 안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난다. 꽤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 내의 청소년 사역의 침체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들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청소년들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수많은 교회들이 청소년 사역에 실패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사역을 포기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접했다. 이것은 비단 감리교회만이 겪고 있는 특수한 문제는 아니다. 교단을 막론하고 해가 지날수록 청소년부 예배에 출석하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들을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 전도는 더 이상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다. 청소년 전도는 정말 시급하다. 청소년을 전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 교회의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정말 소망이 있는가? 청소년을 전도해야 한다.

2. 청소년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

1) 담당사역자와 교사들의 열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청소년 전도의 정답은 없다. 다른 교회에서는 잘 안 되는 전도방법이 우리 교회에서는 효과적 일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되는 전도방법이 다른 교회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다. 담임목사, 청소년부 담당 사역자, 청소년부 교사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청소년을 전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역자와 교사들이 먼저 전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역자와 교사들이 먼저 청소년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중고등학교 앞으로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야 하고, 다양한 방법과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없이 청소년들에게만 전도하라고 외친다면, 청소년부에 잠깐 전도의 불이 붙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금방 식어 버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잠깐 타올랐다가 식어 버리는 전도의 불이 청소년부의 더 큰 침체를 불러 올 수 있다. 청소년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을 전도해야 한다는 사역자와 교사들의 열정과 뜨거움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친구의 관계 전도는 청소년 전도의 백미이다.

친한 친구의 관계 전도는 청소년 전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수년간 청소년 전도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아무리 획기적인 전도방법이라 할지라도 친구가 친구를 전도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청소년 전도 방법은 없다고 확신한다. 사역자와 교사들의 역할은 단지 전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청소년들이 직접 친구를 전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마음의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것이다. 사역자와 교사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선물을 가

지고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 해도 청소년 한 명을 교회로 인도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실제로 영중등대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 인근의 중학교 하나를 정해서 일주일간 매일 2회씩(등교시간, 하교시간) 학교 앞 전도를 나갔던 적이 있다.(지금도 물론 나가고 있다.) 사탕, 요구르트, 비타민, 과자, 초콜릿 등을 나누어 주며 주일 예배에 초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일 예배에 한 명의 친구도 오지 않았다.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며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이다. 믿지 않는 한 명의 청소년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친구를 전도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 교회도 청소년부에서 정기적으로 친구초청예배를 드리게 되면 수 십 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 친한 친구가 자신을 초청했기 때문이다. 학교 앞에서 몇 번을 만나서 전도하며 설득해도 미동도 하지 않았던 청소년이 친구의 초청을 받아 친구초청예배에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친구가 친구를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된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전도하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전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사역자로서 가장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사역자와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친구를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를 강조하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고 끊임없이 격려해야 한다.

3) 전도된 청소년을 위한 신선한 사역이 있어야 한다.

새 친구가 예배에 한 번 나온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배에 새로 온 친구를 공동체에 정착시키고 그 친구가 혼자 힘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전도이다. 몇 명이 전도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정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전도 된 한 친구를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시도하는 것이 사역자와 교사들과 청소년부 학생들의 역할이다. 청소년들은 백인백색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새 친구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 (1) 새 친구가 그 다음 주에도 예배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
 - 무조건 새신자반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 청소년들은 백인백색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음을 기억하자.
- (2) 사역자, 교사들이 관계를 맺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 핸드폰문자, 네이트온, 싸이월드, 손으로 쓴 편지, 학교(학원) 앞 심방 등
- (3) 기존의 청소년부 학생들이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맺는 사역이 이상적이다.
 - 미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훈련된 청소년들이 움직인다.

4) 청소년 전도의 실제 (영중등대: 영등포중앙교회 청소년부)

- (1) 청소년 주일 예배 때마다 정기적으로 전도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부담을 가졌지만 지금은 전도를 강조하는 공동체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전도 메시지의 선포를 통해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전도를 하고 있다.
- (2)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을 훈련하고 있다. 성경 공부, 제자훈련, 리더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으로 청소년들

을 훈련한다.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은 청소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친구를 전도 했다. 양육 프로그램의 단계별 과정을 거치면서 인근의 지하철역에 나아가 청소년들을 전도하는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3) 새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정기적으로 기획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 생명 FESTIVAL, 무한초대 프로젝트, 셀러브레이션 나이트, 홈커밍파티, 다모임SUNDAY 등의 이름을 정해서 분기마다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008년에는 처음으로 CGV 예배를 기획해서 영화관으로 친구를 초대했다. 영화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영화를 보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참 좋았다.

(4) 학교 앞 전도는 쉬지 않는다. 되든 안 되는 매주 인근의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 학교 앞 전도는 우리 청소년부의 지속적인 홍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역자들이 학교와 연계하여 사역하고 있다.(당산중 기독교반 CA인도, 당산중 화요예배 인도, 관악고 수요일예배 인도, 선유고 목요일예배 인도) 학교 안에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청소년들을 초대할 수 있는 것은 이상적인 청소년 전도 방법이다. 교회에서는 연계된 중고등학교 사역을 위해서 매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로 들어가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열정있는 사역자들을 위한 **TIP**

- (1) 사역하고자 하는 인근의 학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 (2) 일단 부딪쳐야 한다. (기독교 교사를 찾아서 먼저 만나보는 것이

가장 좋다.)

-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기독교사는 반드시 있고 교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선생님이 기독교사인지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3) 교회와 학교의 협력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지속적으로 학교에 소개하라.
- 교회시설 이용, 장학금 지급, 특별활동 교사 지원, 학교 운동장 사용 등
 -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교육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 지원이 필요하다.
- (4) 사역자가 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반 CA, 주중 예배(기도회), QT 모임을 인도하라!
- 반드시 학교와 협의가 된 후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
 - 비공식적으로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모임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 교회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의 은사를 활용해 CA를 인도하는 방법도 있다.
- (5) 기독 교사들(신우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선생님들도 사역자의 열정과 성실성을 보면 감동을 한다.
 - 가끔씩 선생님들에게 책이나 CD와 같은 선물들을 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학교로 들어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의외로 쉽게 학교와 연계할 수도 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비공식적인 작은 모임들을 만들어 그 곳에 열정을 품고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신다.

3. 전도하는 청소년부에 소망이 있다.

6년 전(2005년) 영등포중앙교회 청소년부는 한 마디로 “소망이 없는 청소년부”였다.

- 예배 출석 인원 15명
- 헌신하는 교사는 한 명도 없음
- 담당 전도사도 사역을 그만두고 신학생 혼자 사역함
- 형식적인 예배, 어떤 교제나 모임도 없이 뿔뿔이 흩어짐
- 학생들이 서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없음

“어느 누가 봐도 소망이 없어 보였다. 어떤 사람은 망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그랬던 청소년부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일 하셨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랬던 청소년부가 전도하기 시작했다. 사역자, 교사, 학생들이 하나 되어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일 하셨고 수많은 청소년들을 보내 주셨다. 청소년부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청년부의 부흥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청소년부, 청년부 각각 100여 명씩 모여서 은혜로운 예배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미래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소년 전도에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헌신해야 한다. 청소년은 우리 교회의 소망이며, 한국 교회의 소망이다. 청소년을 전도하는 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다.

새날 이야기

이진희 목사 _ 생연교회

땡동!

“야, 문 열어!” “니가 열어!”

마루에 누워있던 녀석들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한 녀석이 어슬렁거리며 일어나 아주 귀찮은 듯 버튼을 누르고 마루에 다시 드러눕는다.

“여기 새날청소년쉼터 맞아요? 아니, 무슨 간판도 없어요?” 이제 그러려니 하는 우체국집배원 아저씨와는 달리 처음 방문하는 택배아저씨들은 가끔 투덜댄다.

말만한 처자들이 하도 들락날락 해서 아는 사람은 알지 모르겠지만, 꼬불꼬불 언덕배기 중턱에 있는 우리집은 간판도 없고 밖에서 보면 큰 감나무가 있는, 여느 평화롭기 그지없는 무난한 2층 주택이다. 출근길, 때마침 담배 피러 내려가던 녀석이 일부러 큰 소리로 “엄마, 왜 이제와?” 하지만 않으면! 여하튼 애들도 이런 우리집을 꽤나 맘에 들어 하는 눈치다. 우리집은 애들이 한번 들어오면 웬만해서 잘 나가지 않는, 수명이 긴 집으로 유명하다. 덕분에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쉼터 수녀님들의 시샘도 받고 있지만, 이게 다 선배 여목사님들의 내공 덕이다.

새날교회 목사로, 또 생활교사로 첫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한 달이 안 돼 들어온 은아 덕분에 나는 얼떨결에 엄마가 되어버렸다. 고놈, 귀에다 대고 귀청 터지게 “엄-마!” 부른다. 별 감정도 없이 부르지만 ‘엄마’ 소리 꽤나 부르고 싶었던 모양이다. 유별난 성질 때문에 다른 애들도 점점 ‘엄마, मामि 목사님’으로 부르더니 어느새 자리를 굳혔다. 새날 선생님들도 그 역할, 캐릭터로 굳히는 데 만장일치다. 애들을 혼내는 사람도 필요하고 포근하게 품어줄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 근데 말이 그렇지 엄마라고 불리는 게 그리 평탄한 일이 아니다. 먼저 일해 온 선생님은 엄마라는 호칭만큼은 절대 사양한단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라는 호칭 때문에 된통 당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

아침6시, 애들 한 두 명이 일어나 부스럭 거린다. 그 소리에 나도 일어나 졸린 눈 억지로 뜨고 아침밥을 간단히 준비한다. 좀 있으면 여느 집처럼 학교가라고 잔소리를 한바탕하며 실랑이 한다. 애들 상태 안 좋고 혈기 부리며 대드는 날은 정말 대단하다. 은아는 아침부터 밥투정을 하더니 급기야 배 아파서 학교 안 간다며 울고불고 난리다. 그럼 쉬라고 하니 ‘학교 안가면 핑계대고 안 갔다고 혼낼 거잖아!’라며 울고불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자립학교와 검정고시 학원을 보내고 나면 좀 조용해진다. 공부도 싫고 알바도 싫고 이것저것 다 귀찮은 문영이는 용돈 깎이는 게 싫어, 이불을 돌돌 감은 채 억지로 일어난다. 아침에 출근하는 선생님들이 그걸 보면 눈살이 절로 찌푸려진다. 빈둥거리는 꼴 보기 싫어 아픈 데만 콕콕 꼬집는 호랑이선생님과 문영이를 떼어놓고 나면 잠시 평화가 찾아온다. 다들 나가고 없으면 자기 방에 늘 조용히 있던 우리집 손재주 많은 지애가 눈에 들어온다.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지애는 내년 봄에 태어날 아기에게 주려고 펠트 천으로 열심히 인형을 만든다. 미혼모 시설보다 여기가 좋다고, 아기 낳기 직전에나 옮기겠다고 한다. 아이의 태명으로 우리가 지어준 ‘새날’이를 너무나 잘 키우는 대견한 아이다. 성경 읽고 싶다고 해서 새 걸로 한권 사주니 꼬박꼬

박 잘 입고 독후감도 쓴다. 지방교회 후원으로 저만큼 예쁜 멘토 언니를 만나 우리가 일일이 해줄 수 없는 걸 도움 받고는 더 안정적이다.

오늘은 무사히 지나가려나.. 근데 응급실행은 꼭 내가 숙직하는 날에 걸린다. 낮에 지민이와 병원에 다녀왔다. 바늘이 두꺼워 주사 중에 가장 무섭다는 매독주사를 맞았다. 집에 돌아와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며 운다. ‘그러니까 다신 그러지마.’ 하면서도 가슴이 짠하고 안쓰럽다. 어찌 해 줄 수가 없어 기도만 해주고 사무 일을 보는데, 애들이 난리다. 갑자기 지민이가 이상하다고, 기절한 것 같다고. 방에 가보니 혼수상태처럼 의식이 가물가물하다. 아는 응급처치를 하고 최대한 침착하게 119에 전화했다. 하지만 놀란 가슴은 어쩔 수가 없다. 구급차를 타고 팔다리를 주무르며 간절히 울며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이요..’ 위세척을 마치고 의사선생님께 조심스레 물었다. “약이 독했나 봐요. 아이가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했거든요.” 내 말에 의사는 당연하다는 듯 한마디 던진다. “독한 약을 알코올이랑 같이 먹으니까 쇼크가 오죠! 좀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네에?” 뜻밖의 말에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속이 부글부글, 머리가 뜨거워진다. 바로 전화를 들었다.

“아, 목사님? 지민이 어떻게 됐어요?” 나는 당장 언니 바꾸라고 하고, 겁이 났는지 울먹이며 전화 받는 성희에게 다짜고짜 혼을 냈다. “네가 지금 눈물이 나니? 누구야, 지민이한테 술 먹인 애가 누구냐고-”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힘들어서 술 먹었고, 지민이한테도 제가 먹으라고 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나가면 되잖아요!” 서러웠는지 이번엔 성희가 원망의 눈물을 쏟는다. 이진 아닌데.. 저도 놀랐고, 나도 너무 놀라고 당황했던 게다. 그래도 어른이 침착해야지, 큰소리 내는 건 아닌데.. 성질 급하고 못난 내가 미워진다.

지민이를 회복침대로 옮기고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성희 달래느라

진이 다 빠진다. 어느 녀석 하나 내 맘 알아주는 녀석 없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가 이제 정신이 드는지 어수룩하게 입을 떼며 ‘엄마가 보고싶다’고 한다. 그나마 보호자인 엄마와 자주 연락이 되는 지민이다. 그럼 엄마에게 연락하자니 안 된단다, 엄마는 절대 부르지 않겠단다. 그렇게 자정이 훨씬 넘었다. 긴장도 풀어지고 졸음이 쏟아진다. 이제 집에 가고 싶다는 아이와 새벽에 돌아오는 길 내내 허탈한 기분을 어쩔 수가 없다. 애들을 재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눈치가 부족했나보다. 애들을 너무 믿었던 게 야.’ 싶은 배신감, 아니 모든 게 경험부족, 기도부족이다.

한 달도 안 되어, 이번엔 윤하다. 여자애들이 성장기에 잠시 앓고 지나간다는 동성친구 사랑에 빠져, 가지고 있던 우울증약, 감기약을 한꺼번에 먹고 결국 응급실로 와서 위세척을 했다. 이제야 정신이 드나보다. 근데 기계소리, 신음소리만 나는 중환자실. 모두 정신이 없는데 윤하만 정신이 말뚱 말뚱하다. 화장실을 가려는 아이에게 간호사 왈, 외출도 금지, 불일도 침대에서만 봐야 한단다. 황당한 우리는 중환자실에서 눈짓 발짓 바쁘다. 이것도 못할 노릇이다. 약물로 입원한 경우, 약물반응 여부 때문에 반드시 중환자실에 2-3일은 있어야 한단다. 나중에는 윤하가 별별 떨며 말한다. “이제 절대 약 안 먹을래요. 죽어도 여기서 불일은 못 보겠어요.” 결벽증이 있는 윤하에게 이건 정말 최악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 웃지도 울지도 못할 해프닝이다.

가장 목사다운(?) 주일 예배시간. 그러나 그것도 잠시 혼자만의 생각, 찬양시간이 되면 확- 깬다. 새날교회 찬양시간은 흡사 노래방이다. 나날이 찬양곡이 늘어나는 자랑스런 노란 파일을 일단 펴고, 내키는 사람이 우선 선곡을 한다. 저마다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지만 일단 존중하며 순서를 기다린다. 하지만 문영이 선곡은 예외. 그도 그럴 것이 문영이는 일년이 가도 늘 했던 찬양 하나만 고수한다. 그것도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룩한(?조용한) 곡으로 말이다. 애들은 경쾌하고 빠른 곡을 좋아한다. 맘에 드는 곡은 어찌

나 크게 부르는지 찬양시간이 스트레스 해소 시간이다. 게다가 오늘은 외부 친구도 두세 명 데려와서 그런지 더 상기되 있다. 전도사님이 기타로, 자원 봉사자 샘이 피아노 반주로 어렵게 따라간다. 여하튼 찬양을 신나게 부르고 나면 꾸밈을 모르는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가 이어진다. 어디 놀러가고 싶은 날이어도 예배는 꼭 드리고 가야 되는 걸로 아는 우리 아이들이 예쁘기만 하다.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성경모임까지 마치면 오후4시쯤 된다. 새 날교회를 섬겨주시는 자원봉사 샘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요리를 잘하는 지영이, 손재주가 있는 지애, 먹지 않는 아이, 폭식과 거식을 번갈아하는 지영이, 먹은 걸 토하고야 마는 아이, 성격이 불같은 세아, 얼굴만큼 마음도 고운 연경, 버려진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는 저는 돌보지 않고 애들더러 안 돌본다고 난리인 솔이, 그러면 고양이를 돌보고 씻기는 따뜻한 윤하, 먹고 먹어도 허기진 아이 문영, 친정 새날에 와서 시댁과 남편 욕하고 가는 슬기, 죄책감에 우는 아이, 얼굴이 없는 엄마 꿈에 시달리는 은아, 자기 몸을 학대하고 상처가 나도 재밌어하는 아이, 자기색깔이 분명한 멋스런 승연..

소중한 인연인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면에 다 쓸 수 있을까.

소중한 딸들에게 작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되어주고 싶다. 좋은 대상, 좋은 경험을 주고 싶어라. ‘하나님, 그런 만남, 상처가 아무는 회복의 만남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새날의 하루는 날마다 뜨고 진다.

청소년 사역 이야기

최세헌 목사 _ 베다니교회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줄어가고 있다. 출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이 빠르게 복음을 향한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조차도 자녀를 향한 우선순위는 신앙이 아니라 학업이다. 보다 명확히 이야기하면 자녀의 성공에 목말라 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잘 벌어서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부모세대 또한 청소년들의 보편적 가치관이다.

과거 10여 년 전만해도 청소년들에게 꿈과 장래희망을 물으면 다양하고 도전적인 답들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에게 물으면 놀랍게도 많은 아이들이 ‘공무원’을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더욱 기가 막히다.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꿈과 장래희망이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수의 아이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

사회는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 역시 이러한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지치고 탈진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 사역은 말 그대로 쏟아 붓는 사역이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명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세상 가치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청소년들은 실제로 영적으로 갈급해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하며, 경험하길 원한다. 그렇기에 청소년 사역은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화려한 조명, 웅장한 음향, 다양한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은 청소년 사역의 도구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 가치가 될 수 없다.

청소년의 시기는 인생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때이다.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교회 상황에 맞는 청소년 훈련 프로그램이 세워져야 한다. 필자는 특별히 청소년 제자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청소년 제자훈련은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이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삶으로 가르치시고 사도로 세우신 바와 같이, 영적 교제와 가르침, 훈련을 통해 ‘작은 예수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 제자훈련은 믿음이 없는 아이를 믿음의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학생에게 믿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자훈련 전 단계, 즉 예비제자훈련과정(기초 신앙과정)등을 통해 신앙의 확신을 세워 제자훈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이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공동체와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훈련과정을 세워 영향력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제자훈련은 다수가 아닌 소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훈련이다. 이러한 집중 훈련은 또래 그룹 안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을 세워, 다수의 아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모집과 선발 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10주에서 12주 정도의 강의 기간, 1~2주간의 전도여행 그리고 수료식에 이르기까지

훈련을 받는 아이들 스스로가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제자훈련은 단순히 사역자가 아이들에게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 부모의 관심과 기도후원을 이끌어 내고, 교회 전체와 교사들의 격려와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강의를 통해 배운 과정을 전도여행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훈련의 영역을 경험하도록 한다.

교회 안에 청소년의 숫자가 적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 한 명으로 시작해도 좋다. 한 명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제자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사역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과 공동체 특성에 따른 저마다의 독특한 영향력을 가진 청소년 제자훈련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길 기대해본다.

성례전적인 영성수련을 통한 청소년 교육

최은원목사 _ 아낌없이주는나무 대표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위기를 돌볼 여유가 없는 듯하다. 세상에서 한국 교회를 질타하는 주된 원인인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중적 신앙행태, 교회의 세속화, 돌봄과 나눔보다 교회 성장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치는 현실은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지금의 학교 교육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에 의한 경쟁과 효율, 자율화를 기조로 대학 자율화, 고교 다양화, 영어공교육 강화라는 3대 교육정책 추진으로 이젠 중학생 때부터 무한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주말과 주일에 학원 수업으로 청소년들이 교회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데, 더불어 학원측은 평일 심야시간 수업을 제한 당하자 오히려 주말수업을 늘려가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교회 청소년의 신앙교육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된다.

이런 한국적인 상황에서 볼 때, 보통 청소년 시기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와 같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주체성 형성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역할혼미 내지 정체성 형

성의 유예기를 종종 갖는다. 이것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는 성숙했을지라도 정신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는 과거보다 더 미성숙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²⁴

R. L. Maddox는 감리교 운동 초기에 캠프 집회와 기도그룹은 초기 성결운동(Holiness Movement)에서 어느 정도 균형 잡힌 훈련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메도디스트 교회생활이 관례화 되지 않게 하는 대안적인 ‘열정적’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²⁵

이에 본인은 청소년 신앙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역동적인 프로그램인 수련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영성 강화는 물론이고, 자아정체성 형성, 거룩한 습관 형성,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깊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 도움을 얻은 권희순 박사의 글의 일부분을 소개하겠다.

“가톨릭과 정교회의 영성적 전통과 접촉하여 새롭게 형성된 개신교 영성으로 새로운 영성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종교개혁 영성이 수도원적 영성을 배격하고 성서 연구 중심의 영성훈련에만 치우친 것이 오늘과 같은 메마르고 알팍한 영성을 낳았으며 그 결과 영적 목마름에 이르게 했다. 특히 종교개혁 신학의 ‘신앙의 인화(Justification by faith)’를 강조한 것이 개신교회의 영적 발달 개념을 약화시켰다고 본다. 웨슬리의 후예인 감리교회가 초기 감리교 운동의 독특한 경험과 가치 있는 전통이 표현된 영성 개발과 영성 수련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²⁶

그래서 본인은 몇 가지에 중점을 두고 수련회를 기획하고, 이것을 통해 청소년 신앙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1) 성례전 신학이해를 바탕으로 한 영성수련으로서의 프로그램 구성

24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 제4차 감리교교육신학과 과정 (서울:도서출판 KMC, 2008), p.172

25 권희순,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 (서울:도서출판 KMC, 2006), p.66

26 권희순, Ibid., pp.12-14 참고

및 공동체 경험 모색

- (2) 성서를 통한 경험과 경험을 통한 성서 이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
- (3) 기존의 통성기도 일변의 수련회 기도방식에서 다양한 기도방법 경험
- (4) 다양한 현대 문화매체를 활용
- (5)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누는 가족(소그룹)공동체 생활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지면 관계상 담을 수 없지만, 3일을 생활하며
영성수련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열악한 청소년 신앙교육의
현실 가운데 매우 보완적인 수단임이 틀림없기에 더욱 사명감을 갖고 임하
고자 한다.

참고자료 9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 (14세~25세)

한국형 청소년 성취포상제 (07세~14세)



*차세대 선교 및 교회학교를 활성화하고
교회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2011년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

I.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 개요 및 현황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14~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봉사, 신체단련, 자기개발, 탐험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청소년 자신 및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전 세계 131개국에서 운영 되고 있는 국제적인으로 인정된 자기성장 활동 목표 성취에 대한 포상제도

1. 전 세계에서 인정합니다!

- 1956년 영국에서 필립 공(에딘버러 공작, 엘리자베스 2세 부군)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 2011년 131개국에서 실시-현재 61개국에서는 국가 주도로 실시(국가 포상 권위)
- 세계 100대 대학으로 선정된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교, 토론토 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멜버른 대학교 등에서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민족사관고등학교, 국제중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공립)고등학교 등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감리교회 청년·청소년부가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진로(진학 및 취업) 모색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차

세대 선교 및 교회학교를 활성화하고 교회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 각급 교회 및 기관, 계통학교(70개 중고대학교) 협의회와 군선교회 등 각 선교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포상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2007년도 영국 금장 수상자 포상제에 대한 효과성 설문조사 결과

- 87%가 포상활동이 끝났어도 그와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
- 61%가 포상활동이 끝났어도 계속 자원봉사자로 활동
- 93%가 취업과 진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64%가 직장을 얻는 데 도움을 받았음
- 83%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었음
- 85%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었음
- 79%가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음
- 78%가 의사결정능력이 증진되었음

4. 제도특성

- 1) 활동기록의 신뢰성 및 공정성으로 활용가치 높음
- 2) 포상심사 과정 단계화로 신뢰성 확보
 - 포상활동담당자 → 포상담당관 → 포상심의관 → 포상감독관 → 포상위원회

- 3) 활동기록부 자체의 포트폴리오 화 : 뚜렷한 성취목표와 계획 그리고 실행 및 성취과정들의 기록과정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기록되고 평가 됨
- 4) 온라인 기록 관리로 신뢰성 확보 및 활동 포트폴리오 제공 및 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5. 글로벌 리더 네트워크 형성

- 131개국의 청소년 및 지도자들의 국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같은 연령대의 글로벌 청소년 리더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됨
- 매년 국제교류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시도별로 외국 국가들과 매칭 순환 교류 시켜 나갈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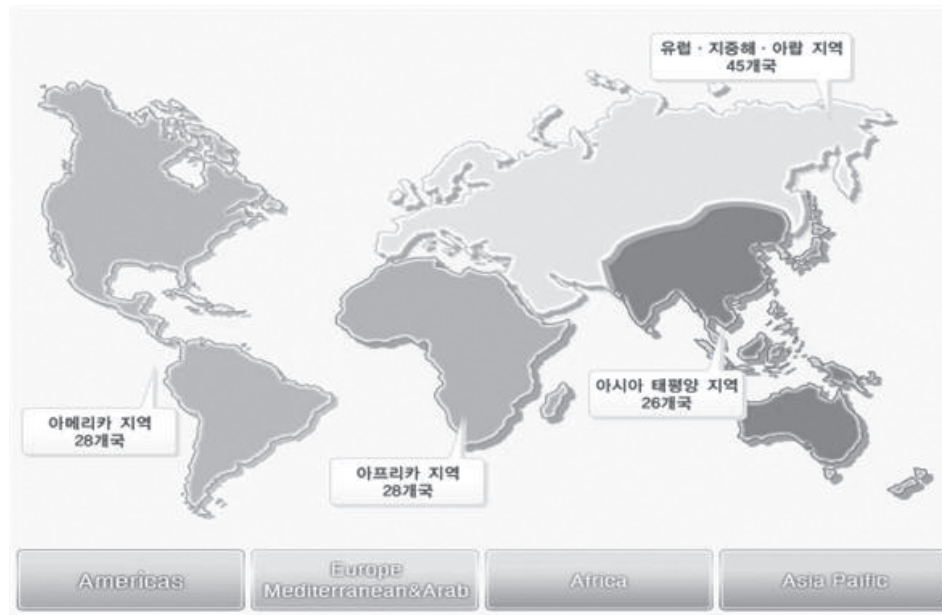
6. 제도 현황

1) 기본이념

- ①비경쟁성 ②평등성 ③자발성 ④융통성 ⑤균형성 ⑥단계성
⑦성취지향성 ⑧지속성 ⑨과정 중시성 ⑩흥미

2) 세계 포상제 시행국가(2008년)

계	유럽·지중해 아랍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메리카 지역
131개국	45개국	28개국	30개국	28개국



7. 제도 개요 및 포상 요건

1) 참여 연령 및 포상 단계

- 참여 연령 : 만 14 ~ 만 24세
- 포상 단계 : 동장(6개월), 은장(6~12개월), 금장(12~18개월)
- 포상활동 영역 : 봉사, 신체단련, 자기개발, 탐험, 합숙(금장 단계)

2) 포상활동영역

- 신체단련활동 : 신체 단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
- 봉사활동 : 타인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
- 자기개발활동 : 개인의 관심 분야를 배우고 익히는 활동

- 탐험활동 : 자연을 통해 도전정신과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활동
- 합숙활동 : 새로운 사람들과 가치있는 목적을 공동으로 이루는 활동

구 분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합숙활동
금장 16세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3박 4일	4박 5일 ※ 금장 단계 한 함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은장 15세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2박 3일	—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동장 14세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1박 2일	—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3개월 수행				

3) 포상 요건

- 포상단계 별 활동영역 모두를 정해진 일정기간 이상 활동하고 각 활동 별 성취목표를 달성하면 국제적인 포상을 받게 됨
- 활동 영역별 최소 필요 시간 이상 지속적 활동하고 성취목표에 달성해야 각 단계별 포상 받음
- 탐험활동 및 합숙활동을 제외한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활동은 각각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씩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해야하고 7일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II. 기독교대한감리회 포상제 운영 현황

1.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아름다운청소년들(총 70개 운영기관 승인)

의정부제일교회, 만나교회, 제천제일교회, 주님의교회, 동광교회, 춘천제일교회, 춘천중앙교회, 창천교회, 주안교회, 베다니교회, 광주교회, 대한기독교장로회 한일교회, 대한기독교장로회 수도교회, 원주청년관, 샘터문화원, 화천청소년수련관, 큰빛교회, 옥계중앙교회, 은혜교회, 둔산성광교회, 논현교회, 명성교회, 반석교회, 불꽃교회, 생연교회, 안산예닮교회, 오목천교회, 우두교회, 철원만나교회, 혜성교회, 행복한교회, 광주교회, 배화여고, 세광고등학교, gvcs, 도봉교회, 상계경신교회, 성화교회, 단해교회, 영동교회, 한사랑교회, 이원교회, 도토리외친구들청소년공부방, 웰링튼좋은교회, 사)아름다운청소년들 충남지부, 부산지부, 경민고등학교, 부산온누리교회, 마전교회, 새비전교회, 선한이웃교회, 큰나무교회, 북실교회, 나무들을위한숲, 한빛교회, 예심교회, 충주남부교회, 행복한교회, 화천제일교회, 아우라지지역아동센터, 빛고소금의교회, 온양생수교회

2. 업무협약현황

- 화천군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프로그램 개발 업무협약
- 기독교대한감리회 군선교회(150여개 기관) 업무협약
- 계통학교 협의회(58개 중고등학교) 업무협약

3. 기독교대한감리회 포상담당관 : 전국 500여명

4. 기독교대한감리회 포상현황

1) 제1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

- 일시 : 2009년 3월 20일
- 장소 : 국회
- 포상 : 동장 90명중 32명 배출
- 우수 지도자 부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수상

2) 제2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

- 일시 : 2009년 12월 18일
- 장소 : 국회
- 포상 : 동장 11명, 은장 : 7명

3) 제3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

- 일시 : 2010년 4월 23일
- 장소 : 국회
- 포상 : 동장 16명, 은장 : 2명
- 우수 청소년 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4) 제4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

- 일시 : 2010년 11월 30일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포상 : 동장 12명, 은장 : 2명
- 우수 청소년 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 우수 지도자 부문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수상
- 우수 기관 부문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수상

5) 제5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

- 일시 : 2011년 6월 10일
 - 장소 : 국회
 - 포상 : 동장 10명, 은장 : 5명
-
- 2009년 화천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프로그램 개발 업무협약
 - 2009년 서울시 436동자치회관 평가 신당5동 최우수동 선정
 - 2009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국제협회지 대한민국 대표사례 선정
 - 2010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탐험활동제공기관 담당자교육 탐험활동 대표사례 선정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창의적체험활동 대국민설명회 대표사례 선정
 - 2010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창의적체험활동 아카데미 대표5사례선정
 - 2011년 국내 최초 금강 합숙훈련 시행(싱가포르 국제교류 프로그램)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기관 모집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 수상
- 2010년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 14세~25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탐험활동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청소년 자신 및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며, 전 세계 131개국에서 운영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성장 프로그램입니다.

I. 모집개요

1. 모집기간 : 연중
2. 모집대상 : 교회, 기관, 시설, 학교, 단체, 군부대 등
3. 주최 : 국제포상협회(IAA),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사무국
4. 주관 : 교육국 사)아름다운청소년들 중앙운영기관
5. 문의 : 교육국 사)아름다운청소년들 중앙운영기관
 - 전화 : 02-399-3955, 팩스 : 02-399-4379
 - 교육국 차세대교육부 : 02-399-4371 정현범
 - 사)아름다운청소년들 : 02-399-3955, 010-7377-2520 이용환
 - 이메일 : pureuny@hanmail.net※ 기대효과

II. 기대 효과

1. 운영기관

- 1)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기관 승인
- 2) 국제적인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인정
- 3) 차세대 선교 및 교회학교를 활성화와 교회 교육의 새로운 모델 제시 - 교회활동 비교과영역으로 인정,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체험활동과 연계

2. 포상지도자

- 1) 131개국에서 통용되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담당관 수료증 제공
- 2) 전문교육 및 연수과정을 통하여 차세대 전문지도자로서의 전문성 획득

3. 참가청소년

- 1) 국제포상협회 인증서, 여성가족부장관 인증서 제공
- 2) 참가활동기록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정보시스템 보존
- 3) 진로(취업과 입시 등)와 관련하여 참가활동기록 포트폴리오 제공
- 4)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 2010년 5월24일))

제2기 감리교 청소년목회 전문훈련과정

청소년 사역자의 사명과 비전

펴 낸 날	2011년 8월 18일
펴 낸 이	신경하
역 은 이	이화식
편 집	정현범 02)399-4371
홈페이지	http://www.kmcedu.or.kr
이 메 일	kmcedu@chol.com
디 자 인	상원디앤피